

VOL.77

Sulwhasoo

VOL.77 JANUARY/FEBRUARY 2017

Sulwhasoo

Sulwhasoo

JANUARY/FEBRUARY 2017





꽃의 향기(Blossom) / 김상윤
Rice paper, Wood, Glass ball, LED / 31×31×18.5cm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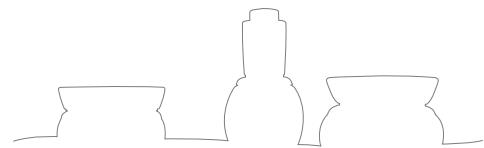
무심한 듯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애뜻해 보이는 한 장의 스케치에서 피어나기 시작한 연꽃은 작가의 손을 거쳐 공간을 넘어 일상에 빛을 비추는 조명으로 숨을 쉬기 시작한다. 꽃과 조명, 어찌 보면 평범하다 싶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삶 속에서 많은 의미와 편리를 전해주는 소담한 오브제들. 그리하기에 깊은 고민과 고민에 따른 창작 그리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더한 복잡 미묘한 감성의 결과물로 태어난 연꽃 조명은 볼수록 연정이 마구 샘솟는다. 종이 결의 아름다움을 명약관화하게 보여주는 한지는 한지 장인 장성우의 손을 거쳐 김상윤 작가의 손품을 더해 꽃잎으로 탄생하였다. 햇살이 비추는 날이면 꽃잎의 결 따라 빛이 투과되어 아름답기 그지없고, 언뜻 연약해 보이지만 한지에 OHP 필름을 부착해 쫄쫄한 바느질로 튼튼하다. 바람을 타고 꽃의 향기가 널리 퍼지는 형상을 빛의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던 작가의 의도대로 불을 켜면 투명한 작은 불 안에서 마치 아주 작은 연들이 빛을 바람 삼아 훑날리는 듯하다.

쓰기에 편하고 늘 자연스럽게 어울리고자, 자연적이고 따뜻한 소재로 감동을 주는 것을 잊지 않는다. 혼자만의 아집을 깨고 많은 이들과 소통하며, 그 소통을 통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작가의 철학이 이 작은 조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A lotus that starts to bloom on a piece of freehand drawing, which looks solitary, yet passionate, breathes with the light that brightens a mundane life through the artist's touch. The flower and lighting may seem ordinary, but they are humble objects that bear much meaning and convenience in everyday life. For this reason, the lotus lighting, which is an outcome of deep thought, is a creation based on that contemplation, along with the complicated emotions that bring forth a person's affection. The Korean paper clearly shows its beautiful texture that has been reborn as petals with the touch of designer Sangyoon Kim and Korean paper master Sungwoo Jang. When the sun shines, the light beautifully permeates the petals. They may appear fragile; however, the Korean paper is covered with OHP film and it is tightly stitched. As the artist wanted to express how the scent of flower diffuses in the air with the movement of light, it also seems as if the tiny kites dance in the air within a small transparent ball when the light is turned on. In order to create something easy to use and naturally coordinated, the artist did not forget to make use of a warm and natural material. The artist's philosophy to pursue the value of life through communication with many people in order to overcome obstinacy is fully captured in this miniature light fixture.

설화수 헤리티지에 빛나는 인삼의 강인한 에너지
자음생 라인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더욱 강화된 인삼 결정체가 피부 재생력과 방어력을 키워 차오르는 피부 활력을
선사합니다. 자음생 라인으로 진정한 안티에이징이 실현됩니다.

The new and improved ginseng essence fortifies
the skin's natural regenerating and defense capacities to replenish vitality.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realizes true anti-aging effects.



Sulwhasoo

JANUARY/FEBRUARY 2017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순행하는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에서 나고 자란 진귀한 원료로 참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내·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설화수.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한방 성분을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3000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 원료 고려 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까지 전 세계 11개국에 진출,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Sulwhasoo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and creates true beauty with precious ingredients grown in nature. It presents the balanced beauty of inside and out. The legendary Asian medicinal herbs that distill thousands of years of Asian wisdom are recreated with modern skincare science to provide the ultimate skincare solution, and create Holistic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Sulwhasoo's original 'JAUM Balancing Complex'™, found from about 3,000 ingredients, coupled with Korea's outstanding ginseng that enables Sulwhasoo's unmatched efficacies and advanced skin science, spread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throughout the world. As of 2017, Sulwhasoo conducts business in 11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Singapore, Hong Kong,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U.S. and Canada, as the Asian beauty creator.

Sulwhasoo

VOL.77 JANUARY/FEBRUARY 2017



펼 치 다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 08
설화지혜
옛 미인에게서 배우다
- 12
피부 섬기기
시간을 뛰어넘는 적송의 생명력을
눈가 위로 펼치다
- 16
新 장인을 만나다
자연에서 얻은 상상, 전통 기법에 담다
- 22
공간미감
자연과 문화예술을 품은 도시
- 28
건너다
피부 속부터 발현되는 설화의 아름다움

발행일 : 2017년 1월 2일(통권 제77호)
발행처 : 심상애 편집인·이우동
발행처 (주)아모레퍼시픽 기획 및 제작·설화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
제품 문의 : 고객센터(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 : 기아 미디어 02)317-4921 편집·권지애, 윤연숙 디자인·조윤희
사진 : 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덕일 인쇄·(주)태산인쇄 02)853-6574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www.sulwhasoo.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 리 다

- 36
설화인
노래, 그 불꽃이 내 모든 존재를 흔들어놓았다
- 44
어우러지다
그림처럼, 예술처럼, 아름답게
- 50
설화풍경
얼음 밑으로 흐르는 인생과 계절의 풍류
- 54
설화보감
한 톨 입안에 넣으니 새콤하니 달콤하구나
- 60
아름다운 기행
비범한 일상의 예술, 우붓 & 타이강루
- 66
설화수를 말하다
멈추지 않는 진화, 시간을 뛰어넘는
절정의 아름다움
- 72
설화공간
비움과 채움 사이 설화수 밸런스 스파
- 74
설화수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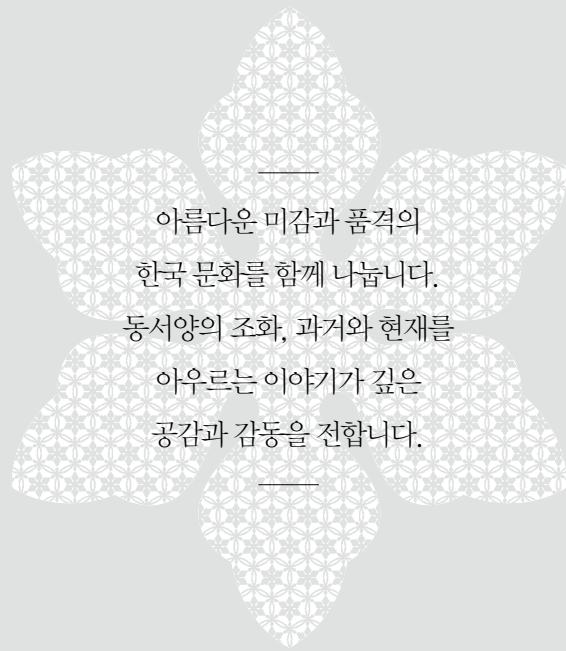


익 히 다

- 78
배움의 기쁨
동서양의 조화가 고와라
- 82
한국의 멋
삶의 매 순간 신성함이 피어오르다
- 84
설화애장
우리 시대에 사랑받는 전통을 꿈꾸다
- 86
읽다
시간이 일궈낸 추상적 흔적에 사로잡히다
- 90
집 안 단장
식탁 위, 미소 한 조각
- 92
몸 단장
머리 위, 소담한 맛을 수놓다



- 94
문화 즐기기
- 96
프로덕트 맵
- 98
독자 선물



아름다운 미감과 품격의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눕니다.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펼
치
다



옛 미인에게서 배우다

Learn from the olden days beauty

여린 초승달을 살짝 누어놓은 양 가느다란 곡선을 그리는 눈썹 아래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기름한 눈이 비스듬히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또렷한 눈동자는 살짝하게 다문 입술과 함께 가녀린 가운데 당당한 심지를 드러내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둥근 얼굴과 그 빛. 배경 위에 떠오르는 부드러운 윤곽, 상아색 맑은 낮빛은 더함도 모자람도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글 민소연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리아)

혜원의 <미인도>를 보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대 술한 여성들을 화폭에 담아내었던 그의 작품 중 가장 잘 알려진, 그래서 한국의 전통 미인상이라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얼굴. 다시 보니 긴 긴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은 환한 피부부터 우리를 매료시킵니다. 섬세한 옷 주름이 은근하게 살려내는 풍부한 관능미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압도합니다. 설부화용雪膚花容, '눈처럼 희디 흰 피부와 꽃과 같은 얼굴'이란 찬사가 딱히 과장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문득 궁금해집니다. 날카로운 바람이 부는 요즘 같은 계절, 저 옛 미인은 어떻게 그 고운 피부를 지켰을까요? 겨울이 되면 바삭 마르는 건조한 피부 고민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겠지요. 옛 궁궐의 다양한 의학적 경험을 모아놓은 책 <경험방經驗方>에는 몸의 진액이 부족해 피부에 윤기가 없고 거칠어지면서 가려움 증 등이 나타난다는 '조병'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절구질한 산약山藥과 곱게 빻은 은행알, 우유로 피부 건조증의 원인인 부족한 진액을 채워준다는 지선전地仙煎 등의 처방은 궁궐의 여인들 역시 건조한 피부가 고민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외양을 다스리기 위해 몸속 모자라거나 넘치는

This is the story of Hyewon's <Miindo>, which is the most famous artwork of Hyewon that has captured the essence of many women on his canvas and the face t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think of the traditional beauty of Korea. If you look at it again, the bright-looking face that has never faded all this time will mesmerize you. The compliment of Seolbuhwayong (雪膚花容: snow-white skin and flower-like face) does not seem like an exaggeration.

How did women with traditional beauty keep their skin looking fine during a season with freezing winds? <Gyeongheombang>, which is a collection of various medical experiences in the palace, mentions 'Jobyeong', which refers to dull, rough, and itchy skin due to the lack of fluids in the body. The use of Jiseonjeon, along with mashed Dioscoreae rhizoma roots, finely ground ginkgo, and milk to replenish the fluids and treat the cause of dryness, allows us to assume that the royal women were also worried about dry skin. There is also an apparent ancient wisdom that focuses on refining the excessive or insufficient conditions of the body. There



실크 분홍 술에 금사를 촘촘히 감아 화려함을 더한 노리게 술과 옥과 진주 등의 재료를 모아 디자인한 '작은 정원' 브로치는 민화아트주얼리.

요소를 살피는 지혜도 엿볼 수 있지요. 피부를 건강과 영혼이 드러나는 창으로 여겨,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지러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던 기록도 눈에 띄네요.

겨울을 촉촉하게 나기 위한 옛사람들의 방법을 더 알아볼까요? 면약(面藥)은 오늘날의 보습 크림과 같은 역할로, <규합총서(閏閣叢書)>에 그 사용법이 '면지법'이라 하여 자세히 나옵니다. “겨울에 얼굴이 거칠고 터지는데 달걀 세 개를 술에 담가 김이 새지 않도록 두껍게 봉하여 네 이레 두었다가 얼굴에 바르면 트지 않을 뿐더러 윤지고 옥 같아진다. 얼굴과 손이 터서 피가 나거든 돼지발 기름(猪趾脂)에 괴화(槐花)를 섞어 붙이면 낫는다.” 한편 참깨와 들깨, 목화씨 기름을 피부에 발라 희고 부드럽게 하는 미백, 유휘제로 사용한다고도 전합니다. 진주가 미용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동의보감> '외형편'에서는 진주가 “주근깨 반점을 제거해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안색을 좋게 한다. 가루 내어 분말로 해서 젖과 섞어 항상 발라준다”고 추천하네요. 명성황후가 진주를 즐겨 화장에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집니다. 건조하고 차가운 날씨, 활력을 잃어버린 피부에 마사지는 적절한 자극으로 활력과 생기를 주지요. <동의보감>도 마사지와 흡사한 '얼굴 안마법'을 권하는데요. “손바닥을 비벼 뜨거워지게 한 다음에 이마를 자주 문질러준다. 이를 '수천정'이라고 한다. 머리털 난 곳까지 열네 번에서 스물한 번 문질러주면 얼굴에서 저절로 광택이 돈다. 손을 반드시 얼굴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눈처럼 희고 달향아리처럼 은은한 피부를 얻기 위해선, 예나 지금이나 바지런함이 첫째 조건 아닐까요? 스스로를 챙기고 다듬는 부단한 노력은 어쩌면 자존감의 다른 표현일지도요. S

are records stating that calming an agitated mind will help in rejuvenating and healing the skin. Myeonyak serves as today's moisturizing cream. <Gyuhapchongseo(閏閣叢書)> explains how to use it based on 'Myeonjibeob'. “During winter, the face becomes rough and it breaks out. Dip three eggs in wine and cover the container with a thick lid, so that the bubbles will not escape. Keep it for four weeks and then apply onto the face to make it look radiant and smooth. If your face and hands crack and bleed, mix hog feet grease and Sophora japonica to patch onto the skin.” It is also said that honey debris was applied and removed to exfoliate the dead skin cells, while the oil extracts from sesame seeds, perilla seeds, and cotton seeds were applied for skin whitening and emulsification. Pearls were also used for skincare. <Donguibogam> 'Appearance Section' recommends the pearls and states that they “remove the freckles on the face for the refinement of complexion. They should be powdered and mixed with milk, and it can be applied at any time of the season”.

Massaging your skin when it has become dull from the cold, dry air will give it energy and vitality. <Donguibogam> also recommends a kind of 'facial massage' technique. “Rub your palms together to warm them up, and then rub your forehead with them as often as possible. This is called Sucheonjeong. Rub up to the hair line from 14 to 21 times to enhance the radiance of your skin. This means that your hands must be kept on your face.” Diligence must have always been the first condition for a snow-white and porcelain-smooth skin. The ceaseless efforts to take good care of yourself is also a way of increasing your self-esteem.



곡선 형태의 백자 불은 우일요, 한 송이 꽃을 꽃아둘 수 있는 백자 미니 화병은 오유리 작가 작품.
세라믹 미니 병은 Büro.

시간을 뛰어넘는 적송의 생명력을 눈가 위로 펼치다 The timeless vitality of Red Pine spreads over the eye area

오랜 시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기상을 지켜가는 적송에서 찾은 진귀하고도 특별한 성분을 담았다.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차별화된 특별한 눈가 피부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부로 드 플로리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일러스트 임성구

삶을 증명하는 생명체로 영겁의 시간 속, 우리의 생활과 문화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소나무. 그중에서도 장수의 상징이자 불로장생의 선약(仙藥)으로 여겨진 적송은 보다 고결하고도 장엄한 의미를 지닌다. 강인한 생명력과 놀라운 치유력 그리고 생명을 이롭게 하는 공생력을 가진 적송의 영험한 비밀스러움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쉬이 허락되지 않았던 만큼 적송 속 피부 생명 강화 성분인 DAA(De-Aging Active)의 발견은 놀랍고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설화수의 집약적이고도 과학적인 연구 끝에 다른 소나무에 비해 적송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DAA가 함유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런 DAA에 증기를 쬐어 찌고, 다시 말리는 총 11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제거, 가장 순수한 DAA를 남겨 33배 농축 강화시키며 효능을 극대화했다. 노화로 인해 손상된 피부를 복구하고 피부 지지력을 향상시켜 피부의 힘을 길러준다. 잡힐 듯 잡히지 않았던 안티에이징의 정수를 만들며, 꺼질 것 같았던 아름다움에 흔들림 없이 강인한 빛을 실어준다.

The pine tree tells so many stories in our lives and culture throughout history. Having been considered as a symbol of longevity and an elixir of invincibility, Red Pine is even more dignified and more magnificent. Anyone would appreciate and welcome the revealing of the miraculous secret of Red Pine with its powerful vitality, amazing remedy, and coexistence to benefit life. DAA (De-Aging Active), a skin-fortifying formula from the Red Pine, was so rare that it was not easily allowed for anyone to have. Sulwhasoo's comprehensive and scientific research has discovered that DAA is found in a relatively great content in the Red Pine. The purest DAA with 33 times more concentration and maximum efficacy can be obtained through 11 steps of steaming and drying for refinement. It restores skin damaged by aging and enhances its bearing capacity for fortification. As the essence of anti-aging that was hardly accomplished, it brings powerfully unwavering radiance to the fragile beauty.





진설아이에센스

부드럽고 섬세한 에센스 제형으로
눈가 피부 고민 부위에 효능 성분을
깊숙이 전달. 탄탄하고 빛나는 눈가
피부로 가꾸어준다. 2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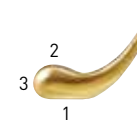
진설아이크림

미세 입자들이 그물망처럼 얽힌
제형이 눈가 피부를 촘촘히 감싸
바르자마자 매끄럽고 탄탄해지는
피부 변화를 선사한다. 25ml.

가장 먼저 노화의 흔적이 발현되는 눈가에서 진설아이 제품들은 적층 DAA 성분을 담고 범접할 수 없는 진가를 발휘한다. 얼굴 피부의 노화로 이어지는 눈가 노화에 대한 다각적인 케어로, 출시되자마자 압도적인 아이 케어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진설아이크림은 눈가의 굵은 주름과 탄력을 개선시켜주며 지속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진설아이에센스는 전방위적 아이 케어 솔루션으로 적층 DAA, 홍삼 사포닌(Compound K), 백삼 사포닌(Ginsenoside F1) 성분이 눈가 피부의 주름과 칙칙함을 케어하고 힘을 길러 건강한 눈가 피부를 완성한다. 이렇듯 눈가의 모든 고민에 대응하여 어느 각도에서나 탄탄하게 빛나는 눈가는 특별히 고안된 순금 코팅 마사저인 '골든아이 케어 마사저'로 한층 더 힘을 발휘한다. 연약하고 섬세한 눈가 피부를 위해 네 가지 부위별로 특화된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진설아이에센스의 효능 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해, 눈가의 부기부터 탄력, 주름까지 케어하며 이제까지 느낄 수 없었던 촉촉하고 편안한 눈가를 선사한다. S

Timetreasure eye products demonstrate the ineffable value of the eye area where the first signs of aging are seen. Since aging in the eye area leads to aging of the entire face, multifaceted care is needed. Timetreasure Renovating Eye Cream EX, which has quickly become a best-selling eye care product, is constantly acclaimed as it corrects deep wrinkles and plumps the area around the eyes. The new Timetreasure Renovating Eye Serum is an all-around eye care solution formulated with Red Pine DAA, Red Ginseng Saponin (Compound K), and White Ginseng Saponin (Ginsenoside F1) to correct wrinkles and dullness as well as strengthen the skin. Firmly brightened from every angle, the eye area is even more fortified with a specially designed pure gold-plated massager called the 'Golden Eye Care Massager'. Its four parts are functionally designed for the fragile and delicate eye area. It brings the active ingredients of Timetreasure Renovating Eye Serum deeply into the skin so you can feel more moisturized and more comfortable than ever before.

골든아이 케어
마사저
How to Use the
Golden Eye Care Massager



1 수딩 마사지

넓은 면을 이용해 ①양 쪽 눈 앞머리에서 눈두덩을 지나 눈꼬리까지, ②양쪽 눈 앞머리에서 눈밑을 지나 눈꼬리 부위를 지그시 눌러준다.(3회 반복)
1 Soothing Massage Use the broad side to gently press ① from the inner end to the outer end of the eye through the eyelid and ② from the inner end to the outer end of the eye through the under-eye area.



2 탄력 마사지

곡선 면을 이용해 ①눈썹 앞머리에서 관자놀이 부위까지, ②눈 앞머리에서 눈밑을 지나 관자놀이 부위까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굴러준다.(3회 반복)
2 Resilience Massage Use the curved side to gently circle and roll ① from the inner end of the eyebrow to the temple through the eyelid and ② from the inner end of the eyebrow to the temple through the under-eye area.



3 인텐시브 케어

커팅 면을 이용해 미간에서 눈썹 꼬리 부분까지 사선 방향으로 밀어올리듯이 마사지를 한다.(3회 반복)
3 Intensive Care Use the cut side to push up and down diagonally from between the eyebrows to the outer end of the eyebrow.



4 지압 케어

지압봉을 이용해 그림의 번호 순서대로 3초간 지그시 눌러 지압하며 마무리해준다.
4 Pressure Care Use the pressure bar to gently press for 3 seconds in numerical Order.





자연에서 얻은 상상, 전통 기법에 담다

Kim Sang Yoon

디자이너 김상윤

한 것보다 할 일이 더 많은 젊은 디자이너의 패기와 열정을 지켜보는 일은 즐겁다. 미래를 선불리 점칠 순 없지만 그가 뚫어온 지난 길은 정확한 방향으로 곧게 뻗어 있다. 트렌드를 쫓는 명품의 카피가 아닌 자신의 스튜디오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 인터뷰였다.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전재호

공간 디자이너란 직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낮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면, 그 안에 어떤 형태로든 공간이 생기 마련이죠.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고민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조명이나 가구 등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작업의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설화수> 표지에 실린 조명을 만드는 것도 저의 몫이죠. 'VENICE DESIGN 2016'에 참가했다가 만난 뉴욕의 한 셰프는 자신의 음식을 모티브로 다양한 디자인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이자, 저술가이기도 하더군요. 그 순간 제가 가지고 있던 경계나 장르에 대한 그간의 고정관념이 허물어졌죠.

스튜디오 경영과 디자이너 겸업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네요.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한데, 디자이너로 몰입하는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기 마련이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절한 분배가

Not many people know about space designers. What exactly do you do? When a structure is completed, a certain form of space is created within it. My job is to contemplate what to fill the space with from a designer's perspective. Therefore, my job involves everything from interior decorating to everything else including lighting and furniture. For example, creating the lighting fixture like the one on the cover of <Sulwhasoo> would be my job. A chef from New York whom I met was also a designer and writer who comes up with various designs inspired by his own food creations. That was when my thoughts about the boundaries and genres were overturned.

It must not be easy to run a studio and work as a designer at the same time. You pointed out a very realistic issue. It takes at least 3 to 6 months to complete a product, so management of the company is jeopardized while I concentrate on my job as a de-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우리의 산업구조가 아주 낙후돼 있다는 겁니다.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구조상의 모순으로 현대적인 의미의 장인이 양성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주 작은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도,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소통 부재가 반복되기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특히 작품 수준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완벽한 '마감'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6개월씩 걸리던 기간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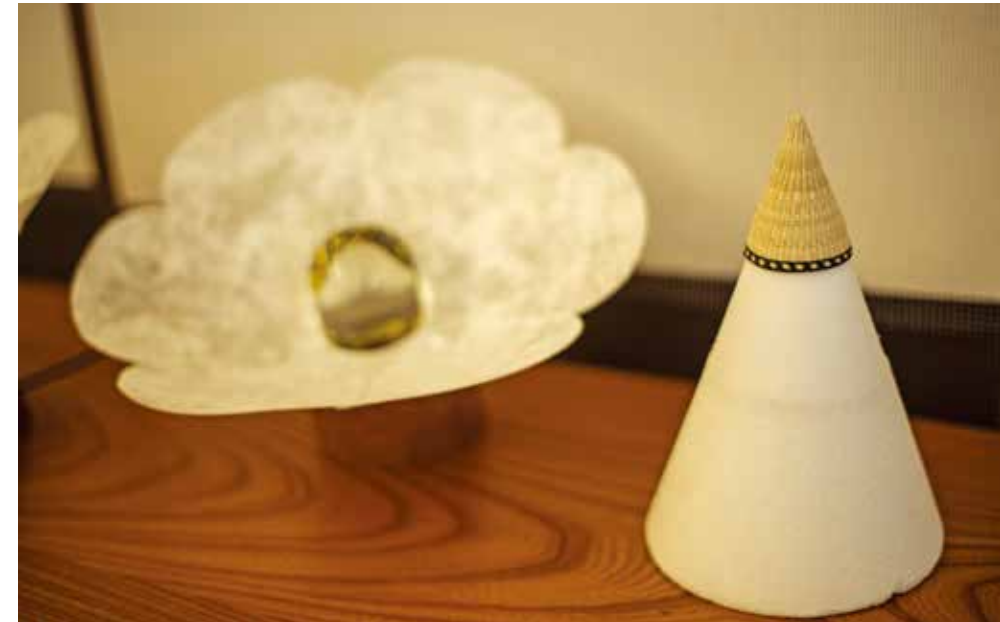
전통 장인들과의 협업은 어떻게 시도하게 된 것인가요? 또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현재의 스튜디오를 설립하기 전부터 장인들과 협업을 해왔죠. 따지고 보면 디자이너와 장인 간의 협업 초기부터 관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백선디자인에 근무하던 시절, 소목장분들과 한국다운 느낌의 가구를 제작하면서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체득해왔으니까요. 거기서 깨달은 가치, 즉 한국 디자인의 독보성을 현재 스튜디오의 아이덴티티로 정립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양면성은 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조상의 정신과 고유한 제조 방식을 발견하는 일은 큰 즐거움입니다. 반면, 각기 다른 작업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없을 수 없죠. 그래서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표지에 등장한 조명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조명의 가운데를 보면 뭐가 연상되세요? 크리스마스 때 볼 수 있는 '스노볼'이 떠오르죠. 거기에 착안해서, 사선의 나무 받침과 연꽃잎을 갖으로 접목한 제품입니다. 연꽃잎에 붙인 한지장의 한지가 빛을 받으면 아주 신비로운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선 볼의 유리를 아주 얇게 하는 일이 어려웠고, 금분의 두께와 크기를 정하는 일도 그랬죠. 거기에 제가 원하는 시간에 금분을 분사하기 위해서는 내장된 회로 기판을 제작하는 일에 시간과 수고가 들어가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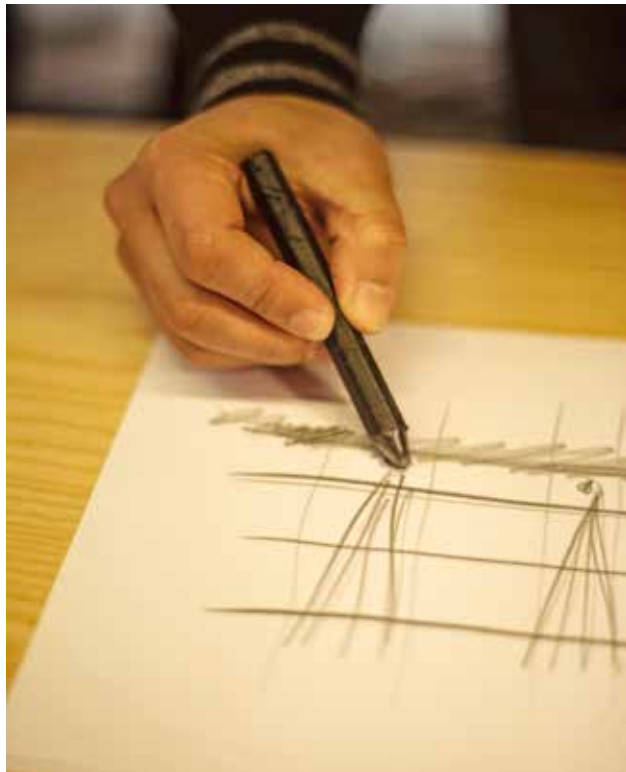
signer. I need to distribute my time evenly to maintain balance. That was when I realized that the industrial structure of Korea is highly underdeveloped. We have not nurtured masters in modern terms because of the social prejudices and structural contradictions against technical experts. I have encountered so many problems associated with unnecessary trials and errors and the lack of communication when creating even a tiny product. I need a flawless 'finish' in order to come up with an artwork-quality product, but it is realistically very difficult.

How did you begin to collaborate with the traditional masters? What did you learn from that process? I have collaborated with them since before I opened the studio. I have fabricated Korean-style furniture with wood craft masters and developed my own sense of aesthetics since I started working for Baeksun Design. I am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my studio based on the value I realized there, which was the originality of Korean design. It has two faces, of course. It is a big pleasure to discover the spirits of ancestors and the original techniques that existed for hundreds of years in our history. However, there is always a communication problem because we are accustomed to different ways of life. Although it is not very easy, I can say it is somewhat fun to solve these problems.

Could you explain the lighting on the cover?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look at the center of this lighting fixture? It is definitely a 'snowball' that you can see around Christmas. I was inspired by that to combine a diagonal wooden support and lotus petals with the shade. The Korean paper on the lotus petals reflects light very whimsically when the light is turned on. But it was difficult to make the glass for the ball very thin and to decide the thick-



디자이너 김상윤의 작품들은 늘 그와 함께한다.
이번 호 표지에 등장한 연꽃 조명과 산봉우리, 산의 등고선을 표현한 찻잔과 플레이트.



스케치하는 그의 손길에서 자연과 전통이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입고 되살아난다.
달빛이 드리워진 모습, 난초에 달이 누인 모습 등 동양적인 미감이 현대적으로 발현된다.

일반인은 전통 장인의 공예품을 보거나 소장할 기회가 적습니다. 이처럼 협업이 활발해지면 비교적 쉽게 우리 일상의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겠군요. 전통 장인의 솜씨는 물론 그들의 정신을 담되, 리빙으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죠. 예를 들어, 소목장 유진경 씨와 협업한 <숲 진 열장>은 귀한 손님에게 차 한잔을 대접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손으로 헤치고 숲속에 깊숙이 간직해두었던 소중한 잔을 꺼낸다는 상상을 디자인한 것입니다.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제작했지만, 사방탁자의 남성적이고 미니멀한 느낌이 우리의 현실 공간에서도 따로 놀지 않도록 연출했습니다. 이것 역시 관상만이 아니라 리빙으로 즐기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 혹은 영감은 어디에서 얻는지 궁금합니다. '작품'이나 '영감'이란 단어는 너무 거창하단 생각이 듭니다. 전 그저 '제품'이란 표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상상력의 근거는 자연이죠. 작품 중에 낙죽 조명 <유맥流麥>이란 게 있는데, 보리 문양을 낙죽으로 새긴 것이죠. 이것을 비롯해 많은 제품들이 달이나 꽃과 같은 자연을 소재로 삼고 있으니까요.

그와 같은 상상을 구체화하기에 적당한 방법이 전통 기법과의 접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국 제품의 카피(Copy)가 아닌 한국이란 공간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긴 안목에서 보자면 그것이 상수多數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귀띔해주세요. 큰 욕심보다는 제품 개발과 스튜디오 운영을 균형적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앞으로도 상상해야 할 일이 많을 테니까요. S

ness and size of the golden powder. In order to spray the golden powder at the right time, I had to devote time and effort to create an embedded circuit substrate.

With active collaboration, it would be relatively easier for us to see the craft creations in everyday life. Our goal is to capture the skills of traditional masters and their spirits in the products that we can use every day. For instance, the <Forest Display Unit>, which I built with Wood Craft Master Jinkyung Yoo, was designed based on the vision of moving the branches apart to bring out a precious teacup kept hidden in the woods for serving tea to a valued guest. It applied the traditional assembly technique, but the masculine and minimal design of the table goes well with any contemporary space.

I wonder where you get your ideas or inspiration for your artworks. 'Artwork' or 'inspiration' sounds too grandiose. I think 'product' is the right name for my pieces. The source of my imagination is nature. One of my lighting fixtures is called <Yumaek>. It is made of bamboo scorched to create the patterns of barley. This is only an example, but many of the products resemble natural things such as the moon and flowers.

Do you think that collaboration with traditional methods is right for embodying your imagination? I certainly do, but what is more important is creating products that can only be made in Korea without copying foreign products.

What are your plans for the future? I don't have big plans. I just want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product development and the studio management while creating a production system that minimizes trials and errors. Imagination is the key to the future.



유지엄 신의 워터가든은 겨울이 되면 물을 없애 자갈밭이 드러난다. 눈이 소복하게 쌓이면 지난 계절과 또 다른 정취를 품는다.

자연과 문화예술을 품은 도시

Wonju

원 주

'원주' 특별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었다면
 이제부터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역사와 문화 유적을 돌아보며 머리와 가슴으로
 교감할 수 있다. 전통과 자연, 문화예술이
 생생한 숨결로 다가오는 원주 명소 탐방.
 에디터 윤연숙 사진 김민은 도움 주신 곳 뮤지엄 산



지난해 11월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원주가 더 가까워졌다. 또,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가 동시에 추진되며 도시에 생기가 돌고, 원주시 차원에서 관광사업이 장려되면서 원주의 숨겨진 매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자연이 가져다준 계절의 아름다움과 소도시의 특성이 어우러진 원주의 풍경은 깊고 느리게 마음을 사로잡는다.

원주 시내에 들어서기 전 꼭 들러야 할 곳은 한솔 오크밸리 안 정상에 자리 잡은 전원형 미술관인 '뮤지엄 산(Museum SAN)'이다. 높은 산자락에 위치한 건축물이 그대로 자연의 일부가 되는 이곳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했다. 웰컴 센터를 지나 본관으로 향하는 길에서 만나는 빨간색 대형 조형물 <Archway>(1997년)와 푸른 하늘, 정원의 빼어난 조화는 카메라를 꺼내지 않고는 건딜 수 없게 만든다. 본관에는 종이를 주제로 한 '페이퍼 갤러리'와 다양한 회화와 판화, 드로잉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청조 갤러리'가 있으며, '카페 테라스'에서 멋진 풍광을 눈에 담으며 가벼운 식사와 따뜻한 음료를 음미할 수 있다. 본관을 나서 9개의 스톤 마운드가 있는 '스톤 가든'을 감상하고, 빛과 공간의 예술가인 제임스 터렐의 대표작이 있는 '제임스 터렐관'까지 관람하면 무한한 감동과 함께 뮤지엄 산의 짧은 여정이 끝난다.

낮선 곳을 알려면 시장에 먼저 가보라는 말이 있다. 원주 시내에 들어서서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2013년 '예술로 연주하는 중앙시장' 레지던시 사업을 진행했고, 2015년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2층을 활용하여 1970년대 건축된 콘크리트 슬래브 형태를 그대로 살린 공간에 '골목미술관'이 조성되고, 다양한 청년 사업가들이 공방을 열어 복합 문

Wonju has become closer to Seoul with the opening of the Yeongdong Expressway #2 in November last year. The city has been brought to life with the corporate and innovative activities that have been promoted at the same time, and its hidden charms have been revealed with the tourism projects of Wonju City. The natural beauty of the season, alo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 local city, allows Wonju's landscapes to capture your heart slowly and deeply. Before you visit Downtown Wonju, you must stop by 'Museum SAN', which is a bucolic art museum nestled at the Hansol Oak Valley. This structure located on top of the hill becomes a part of nature, as this place was designed by the world-famous architect Ando Dadao. The main building features the 'paper gallery' with paper craft and the 'Cheongjo Gallery' with various paintings, printmaking, and drawings. You can enjoy light meals and warm drinks while looking at the beautiful landscapes of 'Café Terrace'. You can also appreciate the 'Stone Garden' with its nine stone mounds outside the main building and the 'James Turrell' exhibit with the major creations of James Turrell, who is an artist of light and space. No matter how short your visit is to Museum SAN, it will end with an absolute feeling of fulfillment.

There is a saying that you should visit the market if you want to learn about a place. Your first destination in Downtown Wonju should be the 'Miro Art Wonju Jungang Market'. In 2013, the 'Jungang Market Ran with Arts' residency program was promoted, thereby resulting in the

1, 2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의 2층에는 다양한 공방과 볼거리가 가득하다.
3 뮤지엄 산의 본관을 나서 제임스 터렐관으로 향하는 길에는 스톤 가든이 자리하고 있다.

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프리마켓이 열리고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며 원주의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원주역사박물관'과 '최규하대통령 생가'가 자리하고 있다. 박물관에는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원주의 역사와 민속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의 후문으로 나가면 우리나라 제10대 최규하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낸 생가가 복원되어 있다. 원주시 봉산동 생가는 1994년 원주시에 기증되었으며 현재의 집은 1997년 원주시립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옛집과 비슷한 평면 구조로 다시 지은 것이다.

원주에는 2007년 기차 운행이 멈추었다가 2014년부터 다시 정차하는 간이역인 '반곡역'이 있다. 일제강점기 말에 지어진 소규모 지방 철도 역사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목조 건축물로, 문화재(등록문화재 제165호)로 지정된 반곡역은 많은 간이역들처럼 승객이 감소하면서 운행이 정지되었다. 그러다 공기업이 들어서면서 출퇴근 수요가 생겨나 현재는 하루 총 여덟 차례 열차가 머무른다. 소박한 간이역은 봄에는 벚꽃이 피어나고 겨울에는 눈꽃이 아름답게 내려, 기차를 타지 않더라도 계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다면 '용소막 성당'에 들러보자.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건립된 성당으로 처음에는 초가집이었는데 로마네스크 양식의 벽돌 건물로 다시 지었다.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 다섯 그루가 성당을 수호하듯 늘어서 있어, 위엄 있고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성당과 어우러지며 정결한 기운을 전한다. 눈이 내리면 더 아름다운 원주에서 겨울의 정취를, 공간의 감흥을 모자람 없이 가져가길 바란다. S

selection at a culture and tourism market in 2015. It triggered the formation of an 'alleyway art museum' on the 2nd floor of a concrete slab building that was erected in the 1970s. The building invited many young businessmen, who opened ateliers, to transform the place into a cultural complex. The people can visit the 'Wonju Museum of History' and the 'Birth Home of Former President Gyooha Choi', which are not very far from the market. The museum exhibits resources about Wonju's history and folk culture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Wonju has a small train station that was shut down in 2007 and reopened in 2014. The wooden building represents the view of the small local train stations from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Designated as a cultural heritage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165), Bangok Station was shut down as the number of passengers decreased, as with many other small stations. Soon after, the public corporations opened nearby and many commuters needed to use the station. Currently, the train stops here eight times a day (four times northbound and four times southbound). If you want a quiet reflection in a tranquil setting, you can stop by the 'Yongsomak Catholic Church'. Five safeguarded sawleaf zelkova trees are beautifully standing as if they are protecting the church. In addition, the elegant and dignified church diffuses clean energy. We are inviting you to take with you the essence of the winter season and the impression of space in Wonju, which is more beautiful with snow.

원주
찾아가는 길

- 유지엄 산**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2길 260
-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원주시 중앙시장길 6
- 최규하 대통령 생가**
원주시 봉산로 134(봉산동)
- 반곡역**
원주시 달마중3길 30(반곡동)
- 용소막 성당**
원주시 신림면 구학산로 1857



1 유교역과 치악역 사이에 있는 작은 간이역인 반곡역 전경. 2 원주역사박물관 뒤편에는 최규하 대통령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다. 3, 4 위엄 있고 고고한 자태가 아름다운 용소막 성당.

피부 속부터 발현되는 설화의 아름다움 The beauty of Sulwha from the skin

싱가포르는 여전히 설화수와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얻은 활력과 설화수로 인해 피부 위에 도는 생기는 그녀들이 더욱 당당한 이유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토크이미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설화수의 고결함이 피어나는

‘가든 시티’라는 별명을 가진 싱가포르의 도심 속 곳곳에 푸르름이 가득하다. 맑고 깨끗한 삶을 공유하기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이 빛나는 순간으로 정원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250미터마다 공원을 조성, 현재 7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녹지와 공원으로 꾸며지게 된 것이다. 나무들과 더불어 살아 숨 쉬는 그린 라이프, 그 속에 살고 있는 싱가포르 여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설화수는 주변 모든 것과 조화를 추구하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

2012년 9월 탕스 오차드(Tangs Orchard)에 첫 번째 설화수 매장이 열리면서 큰 관심과 사랑으로 이어졌고 아시아의 지혜로움으로 가득한 설화수의 효능을 느낀 많은 이들은 피부 위로 발현되는 감동의 물결대로 설화수를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그리고 2015년 7월 1일, 싱가포르 역사, 경제의 랜드마크 캐피톨 싱가포르(Capitol Singapore)에 설화수 100번째 글로벌 매장이자 아시아 최초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문을 열었다. 격이 다른 한방의 아름다움을 싱가포르에서 다시 한 번 강하게 보여주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퍼진 설화수의 강인함은 제품력과 더불어 한국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하며 찬사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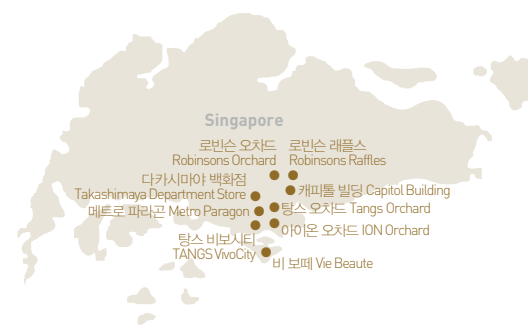
도심 속에서 하나둘 커지는
불빛들은 싱가포르를 더욱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장식품이 된다.



Breathe with nature and let the purity of Sulwhasoo bloom

Singapore, nicknamed the garden city, is an evergreen city. The government of Singapore has made efforts to stay clean and share clean lives. There is a park every 250m to create a garden city, which currently boasts of 700 km² of greenery and parks. Living green lives amidst the trees, Singaporean women's favorite cosmetic brand, Sulwhasoo, is just like nature in that it pursues harmony with everything in the environment.

Since the first Sulwhasoo store opened at Tangs Orchard in September 2012, it has attracted great interest and love from many customers who have experienced the efficacies of Sulwhasoo. The store is anchored on Asian wisdom to express affections toward Sulwhasoo as deeply as the impressive results that customers have seen with their skin. On July 1, 2015, Sulwhasoo's 100th global store and first flagship store in Asia opened at the Capitol, Singapore. The incomparable beauty of Korean Medicine echoed once again in Singapore to take the spotlight. The power of Sulwhasoo has spread to the world beyond Asia and has earned acclaim with powerful products as the messenger of Korean beauty.



싱가포르 내 설화수 매장 입점 지역



최상의 제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여심을 녹인다

2016년 11월, 싱가포르에서 또 한 번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세계 최대의 쇼핑몰 집중지역으로 각국의 여행자들이 찾는 Orchard Road(Orchard Road), 이곳에 위치한 ION 몰 안에 설화수 8호 매장을 열게 된 것. 이를 기념하는 오픈 기념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현지 주요 미디어를 비롯해 ION 몰 대표 그리고 싱가포르 국민가수 미스 키트 찬(Ms. Kit Chan)을 포함한 60여 명의 VIP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다른 글로벌 브랜드와 다르게 설화수는 아시아의 지혜와 히스토리 그리고 이야기가 담겨 있어 더욱 마음에 와 닿습니다. 처음 윤조에센스를 사용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늘 건조함에 시달리던 제 피부가 처음으로 안전한 보호막으로 촉촉하게 감싸지는 느낌이랄까요?”

미스 키트 찬의 애정 어린 이야기처럼 윤조에센스, 자음생크림 등 스킨케어 제품은 물론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래디언스 블러셔 등 메이크업 제품들 역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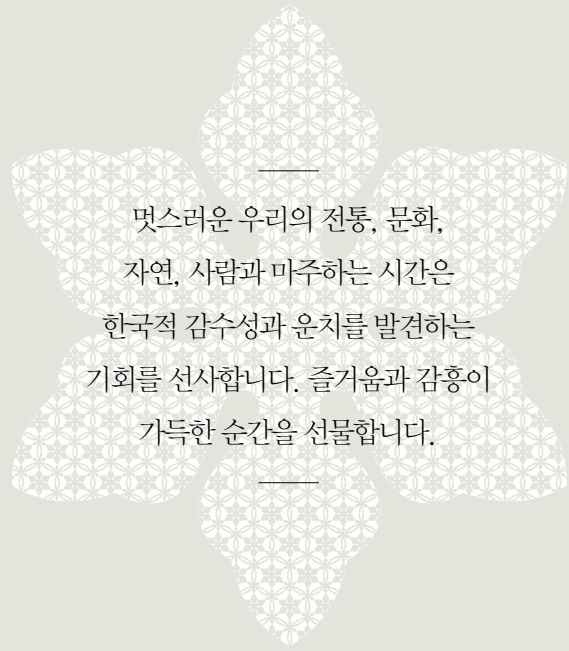
앞에서도 말했듯이 ION 몰에서는 럭셔리 브랜드들의 글로벌 트렌드를 모두 만날 수 있는데 이곳에서도 설화수의 매장은 더욱 빛이 난다. 수천 개의 매화가 설화의 정원에 스며들어 화사하게 피어나는 콘셉트 인테리어로 시선을 사로잡고, 글로벌 최초로 '스파 2.0 프로그램'을 도입해 차별화된 체험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욱 가치 있는 홀리스틱 뷰티를 전하고 있다. S

무심코 지나가는 발걸음마저 붙잡아버리는 설화수 매장. 휴대폰으로 촬영해 SNS에 공유하고 싶은 만큼 한국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

Earning the hearts of women with premium products and differentiated services

Another good news has come from Singapore in November 2016. Sulwhasoo's 8th store opened at the ION Mall along Orchard Road. The opening ceremony was as successful as the first store opening and was celebrated with about 60 VIP guests, including major local media, the president of ION Mall, and Ms. Kit Chan, one of the most popular singers in Singapore.

“Unlike other global brands, Sulwhasoo feels closer to my heart with its Asian wisdom, history, and stories. I cannot forget how impressed I was when I first used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It felt as if my dry skin was safely wrapped with a protective moisturizing barrier for the first time.” Like Ms. Kit Chan's affectionate compliment, Sulwhasoo's skincare products such as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and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are widely loved alongside makeup products such as Perfecting Cushion Brightening and Radiance Blusher. As mentioned above, the ION Mall represents the global trends of luxury brands, but Sulwhasoo's store stands out. The interior with thousands of plum blossoms radiant in the garden of Sulwha is surely eye-catching. The world's first 'SPA 2.0 Program' has been adopted for a differentiated space and services to share priceless Holistic Beauty.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흥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가
미
다





노래, 그 불꽃이 내 모든 존재를 흔들어놓았다
Singing, the flame that changed my existence

Park Hye Sang

박혜상

지난 연말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는 달콤한 사랑에 달뜬 사람들로 붐볐다.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남긴 사랑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묘약,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이 공연됐기 때문이다.
로미오가 "사랑, 그 불꽃이 내 모든 존재를 흔들어놓는구나!"라고 외치니 발코니 위에서 아름다운 줄리엣이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노래에 모든 것을 내어준 우리의 프리마돈나 박혜상이었다.

글 이재영 진행 윤연숙 사진 전제호



어린이 합창단 무대, 독창을 시작한 아이는 몇 마디 부르지 않고 울면서 무대를 내려왔다. 놀란 엄마는 아이에게 물었다. “힘들면 노래하는 것 그만둘까?”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말했다고 한다. “노래만큼은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아이가 긴장감 때문에 눈물을 터뜨렸을 뿐,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확신했다. 그 뒤로 묵묵히 노래의 날개를 뻗을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부모님은 잘해라, 1등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껏 꿈꾸라고 말씀하셨다. 꿈을 꾸는 건 돈 드는 게 아니라면서. 처음부터 남들이 다 간다고 가는 유학은 가지 말자고 다짐했다. 정말 노래를 평생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 때 떠나자고 생각했다. 졸업 무렵 가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우선 여행을 떠났다.

“저와 맞는 곳을 찾고 싶었어요. 우선 유럽으로 갔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도 다녀왔어요. 나를 성장시키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았죠. 처음엔 역사 깊은 유럽이 맞는 것 같았는데, 줄리어드에 다녀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줄리어드라는 대단한 학교에서 나를 받아들여 고민했지만 마음이 끌렸어요.” 그렇게 도전한 줄리어드 대학원은 생각한 대로 녹르지 않았다. 두 번의 낙방. 최선을 다한 결과는 좌절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박혜상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아이들 레슨부터 작은 무대 연주까지 가리지 않았다. 먹고살 길을 찾기 위해서였다.

“하루하루 고민하고 있는데 줄리어드 대학원에서 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한 번만 더 테스트를 받아보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엔 거절했죠. ‘최선을 다했으니 미련은 없다’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반포기 상태로 ‘그래, 노래 한 번 더 하고 오자’는 심정으로 찾

During the performance of a children's chorus, one of the children, who began singing her solo, ran off the stage crying only after a few verses. Her mom asked her in a surprised tone, “If it is too hard for you, do you want to quit singing?” The girl stopped crying and said, “I will never quit singing.” Her mother was assured that the child cried because she was just feeling nervous at the thought of singing on the stage, and not because she disliked doing it. Since then, she has given her full support for the girl to spread her wings in singing. She decided not to go abroad just because everyone else is doing so. She wanted to leave when she was absolutely sure that she could sing for the rest of her life. She received that confirmation by the time she graduated. First, she went on a trip. “I wanted to find a place that was right for me. Europe was the first place I chose to visit. I went to Germany, France, Italy, and North America. I looked for a place where I could improve myself and learn. I thought Europe would be suited for me because of its history; however, I changed my mind after visiting The Juilliard School. The Juilliard School was such a great place. Although the school is attractive, I still wondered if they would accept me.”

It was not easy being accepted at The Juilliard School, just as she had expected. Those were two rejections. She ended up becoming frustrated despite her best efforts. As a result, she returned to Korea and she started teaching children to perform on small stages. She had to make a living. “I spent every day thinking what I should do for a living and what I should do for my future.

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것도 전액 장학금을 받는 장학생으로. 박혜상은 그 시절을 인생을 통틀어 가장 많은 성장을 이룬 때라고 기억한다. 그때부터 다른 마음으로 노래를 받아들였다. 단순히 좋아하고 재미있는 것이 아니었다. ‘업業’으로 삼아야 하는 것,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됐다. 절박했고 노래에 대한 강한 의무감이 생겼다. 매일 죽을힘을 다해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다. “단순히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책임감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목소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연습도 열심히 했고, 노래의 범주를 벗어난 모든 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노래를 위해 더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 부단한 노력으로 어느덧 세계가 주목하는 프리마돈나로 돌아온 박혜상은 말한다. 오페라는 무대에 선 사람과 관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이라고.

“지난 연말 감사하게 국립오페라단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연을 맡아 공연을 했어요. 저는 줄리엣의 역할을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줄리엣이 되려고 노력했죠. 진짜 줄리엣이 되어서 관객들에게 노래를 통해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저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무대에 올라요. 이번에도 그랬고, 관객분들이 많이 공감해주셨어요.”

2011년 국립오페라단 <사랑의 묘약>의 조역으로 데뷔한 지 5년 만에 주역으로 돌아온 그녀를 관객들은 뜨겁게 반겨줬다. 폭넓은 음역대와 풍부한 표현력, 박혜상은 무대에서 자신의 노래가 통할 수 있는 원천으로 한국인만의 조화와 성악가로서의 균형을 이야기한다.

“흥과 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DNA잖아요.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 이 둘의 균형을 맞추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즐기지만 하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말 못 할

Then, I received an email from The Juilliard School. They wanted to test me one more time. I refused at first. I had no regrets because I had done my best. Thankfully, they persuaded me. I simply thought that it was okay to sing one more time, and I took the test again.” Soon after that, she received a letter of acceptance along with a full scholarship. Park remembers that moment as the time of her life when she achieved her greatest development. That was when she faced music with a different mindset. It was not only fun to do, but it was also her ‘job’. Therefore, she had to sing with full responsibility. She was desperate and strongly obligated, and she did her best to stay awake every day.

“I did not simply enjoy it, but I decided to give it a better meaning and develop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it. I decided to share my voice with other people. I studied and practiced hard. I have done my best in everything, even outside the realm of singing, so that I could sing better.”

Park has returned as a prima donna, who attracts the world with ceaseless efforts, and tells us that opera is a type of art created by the performers on the stage and the audience.

“Thankfully, I played Juliet for the Korea National Opera’s <Romeo and Juliet> at the end of last year. I tried to perform as my own interpretation of Juliet without imitating other performers. I transformed myself into Juliet and communicated with the audience about myself through my songs. Every time I performed on the stage, I always think that I am conversing, and not acting.”





깊숙한 감정이 있어야 하고, 무조건 슬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감정을 함께 끌고 가는 거죠. 웃음과 눈물에도 기쁨, 슬픔, 분노 등이 존재하듯 감정은 하나로 귀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흥과 한, 이 둘을 조화롭게 제 안에서 가지고 놓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풍부한 표현을 위해 감정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성적으로 테크닉과 발성을 완벽하게 셋업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야말로 성악기는 조화와 균형이 없으면 안 되는 직업이죠.”

새해 세계 최고의 오페라단인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 <루살카>에서 숲의 정령 역을 받아 데뷔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미 2017년 스케줄이 꽉 차 있다는 박혜상은 이렇게 당부한다.

“저희 아버지는 오페라의 ‘오’자도 모르셨어요. 관심이 없으셨죠. 그런데 지금은 오페라를 사랑하세요. 비결은 계속 듣는 거였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클래식은 절대로 고상하기만 하지 않아요. 한 마디로 진국이에요. 들을수록 알게 되고, 볼수록 느끼게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듣다 보면 귀가, 몸이 알아서 즐길 준비를 마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가와주세요.”

이제 막 날갯짓을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했다. 부담감이 밀려오지만 또 그만큼의 기대와 다짐도 충분하다고 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악가가 됐으면 좋겠고,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인간이길 바랐다. 아마 박혜상은 원하는 대부분의 것을 이룰 것이다. 노래는 이미 그녀의 업이 됐고, 이렇게 된 이상 그녀는 매 순간 깨어 있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할 테니 말이다. S

The audience warmly welcomed her return after five years as a star of the show, since she debuted as a supporting actress in Korea National Opera's <The Love Potion>. With a broad range of vocal performances and dramatic expressions, Park speaks of her harmonious personality as a Korean and a vocal singer, as the source of her powerful communication on the stage.

“Feelings of excitement and resentment are parts of the basic DNA that every Korean possesses. I believe that an enormous amount of energy comes out when you balance the two as a performer on the stage. I can enjoy performing and feel indescribable emotions inside. It is about being able to express various emotions from start to finish, instead of just focusing on sadness. You can feel different emotions at the same time as laughter and tears can entail joy, sadness, and anger. Therefore, I want to perform with balance and play with feelings of excitement and resentment. It is also important to try to balance emotion and reason. Your emotion is essential for the richness of expression, but it is just as important to perfectly set up techniques and vocalization with reason. A vocal singer is all about harmony.”

She said she is barely starting to flap her wings. It is burdensome, but she is filled with expectations and resolutions. She wanted to become a singer who is not afraid of failure and a person who is capable of accepting her mistakes. She is capable of achieving most of what she wanted. Singing has already become her job, and she will continue to be aware of every moment.

헤어&메이크업 조원경, 히린(엔플로에)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 주신 곳 로맨스크(02-3447-7701), 스톤헨지(02-531-2198), 레이첼룩스(02-6215-0070), 앤디앤뎀(02-3448-6095), 딘트(02-3442-0220), 스와로브스키(1661-9060)

그림처럼, 예술처럼, 아름답게

갤러리처럼, 집 안 곳곳에 액자를 걸어보지만 예술을 감상하기엔 왠지 모를 허전함이 감돈다.
액자를 걸었던 벽면에 평범한 벽지 대신 다채로운 색상과 문양으로 채워진 벽지를 붙여본다면 어떨까.
식막했던 공간에 예술적 감성이 마구 피어오른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1 숲과 새가 프린트된 '따뜻한 손님' 디자인 벽지는 올리브벽지, 2 우드 펜던트는 아페 라이팅, 3 오크 원목 침대는 블라노스, 4, 5, 6 카키색 리넨 베개와 다크 그린 큐빅 외플 담요, 연핑크 톤의 리넨 베딩 세트는 모두 드로잉앳홈, 7 백자 차 세트는 모두 손세은 작가 작품, 8 민트 컬러 플레이트는 김남희 작가 작품, 9 자작나무 화형 원반은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10, 11 도자기 화병들은 강민경 작가 작품, 12 Skin series 사이드테이블은 권중모 작가 작품, 13 프리츠 한센의 프리 체어는 보에, 14 리넨 베개는 드로잉앳홈.



*아트 그레이 컬러의아트워크 디자인 마루 '아트맥시강'은 구정마루.



전통의 감성이 깃든 벽지, 모던하게 어우러지다

요즘은 전통과 현대를 한 공간에서 아우르는 것이 감각적인 트렌드로, 홈오너의 센스로 여겨진다. 집안의 전체적인 색감을 고려해 선택된 전통 모티브 패턴의 포인트 벽지는 훌륭한 인테리어 오브제로 공간을 훨씬 깊이감 있게 만들어준다. 또한 오른쪽의 '책가도' 벽지처럼 공간의 용도에 맞춰 벽지를 선택하는 것, 벽면을 가득 채운 화화 작품처럼 다가온다.



왼쪽 페이지 1 빈티지 조명은 플로스 by 비투프로젝트, 2 자연 방염 소재의 '용준' 벽지는 모노컬렉션, 3 골드 프레임 거울은 38에비뉴 by 윤현앤즈, 4 아자마 히로시 디자인의 핀라운드 테이블과 핀 체어는 보쿠즈, 5 나무 주걱은 Areat+ 소장품, 6 회화적 기법이 돋보이는 빈티지 볼은 이윤신 작가 by 이도포터리, 7 박수이 작가의 옷걸이서는 Areat+, 8 일인용 테이블 매트는 Areat+, 9 가죽 손잡이와 동과 내부 니켈 도금된 드리퍼는 김준수 작가 작품으로 아원공방, 10 그레이 금속 오브제는 김대건 작가 작품으로 갤러리로얄, 11, 12 보라색 타원 옷걸이 나무 도사락과 동근 네모 베싸개는 허명욱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아일랜드아트스튜디오 갤러리, 13 브라운 저그는 Olo, 14 노란빛 화병은 여비진 옷칠 스튜디오, 15 그레이 우드 체어는 MUUTO by 라폴레트. 오른쪽 페이지 1 브라운 톤의 '책가도' 벽지는 올리브벽지, 2 스틸과 브라스가 조합된 컴포지션 램프는 성기백 작가 작품으로 갤러리로얄, 3, 4 우드와 스틸로 된 비트라 데스크와 스탠드 체어는 모두 보에, 5 유창목 문진과 월넛 컬러 책갈피는 모두 루미디브릭 by 윤현앤즈, 6 옷걸이 필통은 이수진 작가 작품, 7 핑크 톤의 트레이는 여비진 옷칠 스튜디오, 8 스틸 판재를 접어 제작한 3단 책장은 잭슨키멜레온, 9 패턴 있는 도자기 화병은 Buro, 10 네이처 한지 노트는 김현주 작가 작품, 11 적동에 칠보 범랑을 한 Tall Vase는 HAAM.

* 아트 그레이 컬러의 아트워크 디자인 미루는 구장미루.

왼쪽 페이지 1 플라워 패턴의 '사랑스런 로라'

벽지는 올리브벽지 2 전통 짜맞춤 기법 수납장은 김상윤 작가 작품으로 리스커뮤니케이션 3, 6 자일과 물병은 조은숙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4 백자 화병은 LVS·CRAFT 5 토끼 도자기 마개는 강민경 작가 작품 7, 8 백자 차통과 화병은 손세은 작가 작품 9, 10 그릇과 미니 화병은 오유리 작가 작품 11 달빛이 드리워진 형상을 표현한 조명은 김상윤 작가 작품으로 리스 커뮤니케이션 **오른쪽 페이지** 1, 2, 4 JUNGLE LIFE 원단으로 제작된 파티션과 베이지 쿠션, JARDIC D'OSIER 원단 쿠션은 모두 HERMES 현우디자인 3 벨벳 쿠션은 모노컬렉션 5 '강릉고기' 이불은 모노 컬렉션 6 통나무 테이블은 블라노스 7 옷걸이 트레이는 Area+ 8 유리병은 아원공방 9 테이블 램프는 아페라이팅



차분한 듯 카리스마 넘치는 대담한 패턴의 선택

슬리드에서 탈피한 강렬한 패턴이나 색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공간은 훨씬 더 카리스마 넘치게 된다. 한번 붙이면 쉽게 바꿀 수 없는 벽지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병풍 또한 기발한 아이디어다. 공간 구성에 따라 위치를 옮겨 매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음 밑으로 흐르는 인생과 계절의 풍류

물의 흐름을 잡고 기온은 여전히 영하로 떨어지지만, 단단한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살은 벌써부터 봄으로 향하고 있다.
고요한 듯 강인한 힘을 자랑하는 한국의 힘찬 폭포, 시리도록 아름답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토픽 이미지

순간의 아름다움으로 얼어붙은 고드름

낙하하며 돌을 세게 치던 물줄기는 어느새 강가로 흘러가기도 전에 돌 하나하나를 얼리거나 고드름을 형성한다.
그 위로 눈이 내려 소복이 쌓이고 나면 탐스러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주렁주렁 폭포 끝에 매달려 있는
고드름은 이내 물로 흐르지 못한 채 안타까운 아쉬움을 달란다.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는 고매한 정신

“폭포는 곧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規定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든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김수영의 시 <폭포>는 타협 없는 양심의 자세이며, 굴종이나 무기력을 용납하지 않는 투철한 정신의 기상이다.

거친 바람 속에서도 스스로 고운 결과 윤을 발하다

어둠 속에서도 빛의 도래를 알리며 만물과 영혼을 깨우는 정유년의 의미를
담아 만든 윤조에센스 심이지신 컬렉션, 윤택함이 넘치는 피부를 위한 2017년의 첫 번째 선택이다.
(심이지신 컬렉션은 1월 10일부터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적송의 귀한 기운을 더해 촉촉하고도 윤기 넘치는 얼굴 피부를 만들어주며,
언제 어디서나 흐트러짐 없는 피부 결로 완성시켜주는 퍼펙팅쿠션 인텐스, 완벽한 피부 표현을 위한 현답이다.

한 톨 입안에 넣으니 새콤하니 달콤하구나

제아무리 맛있다 한들 제철 과일을 쫓아올 리 만무하다. 겨울의 고비에서 열매의 결실을 맺는 울퉁불퉁한 모양새의 한라봉은 맑은 제주의 기운을 받아 맛의 절정에 이른다. 비타민C 또한 풍부하기에 누구에게나 건강한 과일로 사랑받는 한라봉. 간단하게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 오손도손 모여 앉아 나눠 먹는 한라봉으로 만든 후식, 자꾸만 손이 간다.

푸드 아티스트 노영희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얇고 바삭하게, 향기마저 가득한
모양까지 예쁜 집

재료

한라봉 1개, 설탕 1~2큰술, 레몬즙 조금

만드는 법

- 1 한라봉 1개를 세로로 얇게 썬다. 너무 얇게 자르면 쉽게 부서지므로 0.3cm 정도의 두께로 썬 게 좋다.
- 2 볼에 물과 설탕 1~2큰술을 넣고 잘 녹여 시럽을 만든 후 레몬즙을 넣는다. 3 얇게 썬 1의 한라봉을 2의 볼에 넣고 시럽을 충분히 묻혀준다. 4 3을 100℃로 예열한 오븐에 넣고 2시간 정도 말린다.



알알이 터지는, 시원하고도 개운하게
 색색깔 과일까지 더한 화채

화채 하면 여름에만 먹는 후식으로 생각하기 일쑤.
 하지만 한겨울 한라봉 화채는 감기까지 예방해주는 든든한 음식이다.

재료

한라봉 · 석류 · 배 1개씩, 설탕 80g, 꿀 20g

만드는 법

1 물 2컵에 설탕과 꿀을 넣고 팔팔 끓인 후, 차가워질 때까지 식힌다. 2 한라봉 껍질은 물론 속껍질까지 간 다음 알알이 떼어낸다. 이때 너무 힘을 주어 떼면 뭉개지므로 탱글탱글한 식감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떼어낸다.

3 1의 식힌 물에 알알이 떼어낸 한라봉과 석류, 작은 모양으로 썰어둔 배를 넣는다.



재료

한라봉 1개, 설탕·물 1/2컵씩, 레몬즙 2큰술, 설탕 조금

만드는 법

- 1 한라봉은 겉껍질까지 사용하므로 깨끗이 씻은 후 껍질을 벗긴다. 껍질은 스틱 모양으로 먹기 좋게 썰어둔다.
- 2 1에서 썰어둔 껍질을 한 차례 삶아 준비한다. 3 설탕, 물, 레몬즙을 넣은 팬에 2의 한라봉을 넣고 약한 불에서 멥근히 조리한다.
- 4 3의 완성된 정과 위에 취향에 따라 설탕을 솔솔 뿌려 낸다.



새콤한 맛 그대로, 툭툭툭 씹어 먹는
달달한 겨울밤 정과

껍질 까지 알만 쪽 빼먹고 버리기엔 껍질에 영양소가 가득하다.
꿀보다 큰 만큼 한라봉 하나로 겨울밤이 심심치 않은 훌륭한 간식을 만들 수 있다.

평범한 이들이 만들어낸 비범한 일상의 예술

Ubud & Taikang Lu

우붓 & 타이강루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얼마나 고가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 핀 예술은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며, 고귀하고 아름답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전재호





자연과 신을 존중하는 인도네시아 우붓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나무와 함께 시공을 영위한다. 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사원의 조각들은 불수록 신비스럽다.

정형화되고 일반화된 미술관 속 고가의 예술이라는 수식어에 갇혀만 쳐볼 수도 없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농사 짓던 손에는 어느새 붓이 들려 속속 그림을 그리고, 해맑은 미소로 관광객을 맞이하던 수줍은 여인들이 의자에 앉아 수공예의 절정을 보여준다. 특별한 큐레이팅은 없지만 소박한 그림들은 담벼락에 기대어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예술인 마을'이라는 멋진 별명을 가진 인도네시아 중부의 작은 마을 우붓(Ubud)과 상해의 타이강루 티엔즈팡(Taikang Lu Tianzifang)은 다른 듯 닮은 평범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거리 곳곳에는 비범한 예술이 일상에서 숨 쉬고 있다. '예술이란 고로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졌을 때 가장 빛난다'는 누군가의 말이 딱 들어맞는 이곳들은 볼거리는 물론 먹을거리까지 예술이기에,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기꺼이 향해 즐거운 비행을 한다. 인도네시아 발리, 유명한 휴양지이자 서핑과 신혼여행을 위한 성지로

Life cannot be compared with what is caught in the name of expensive art that you cannot even touch in the uniformed and generalized art museums. Farmers have used their hands to paint with brushes, while the bashful women who used to greet the tourists with friendly smiles have sat down to exhibit their handicraft. There is no particular exhibition, but the humble drawings on the walls capture the eyes of the passersby. The small village of Ubut in central Indonesia is also known as 'the artists' village'. Taikang Lu Tianzifang of Shanghai look ordinary wi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o Ubut; however, the streets are filled with extraordinary artworks to breathe with your everyday life. They are best suited for the saying that art shines most brightly when it is naturally incorporated in your everyday life. Everything



우붓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전의 놀라움이 계속된다. 평범한 농민의 손끝에서 발현되는 그림.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오리는 유명 화가 못지않기 때문이다.

알려져 있지만 비행기가 착륙하는 덴파사르에서 약 25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 우붓은 발리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국내외의 많은 화가들이 거주하고 있다. 힌두교 신화를 주제로 한 독자적인 발리의 전통 예술과 일상생활을 소재로 삼은 현대 회화를 절충한 형태의 독특한 발리 회화를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울창한 밀림과 평화로운 라이스 필드가 어우러진 조용한 마을, 몇 킬로미터 되지 않는 길이지만 천천히 걸어본다면 누구라도 우붓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가진 것만큼에서 행복을 느끼고 예술을 사랑하는 우붓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순수함이 가득하다. 순수한 감성에서 피어오르는 예술은 잔잔한 듯 큰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예술이 이토록 평범한 듯 친근하게 다가오는 곳이라면 한 달을 머물러도 짧게 느껴질 것이다.



here from the visuals to the food is artistic; therefore, many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re visiting this place. Bali, Indonesia is one of the most famous vacation resorts and destinations for surfers and honeymooners. However, the small village of Ubut is approximately 25 km from Denpasar, where all flights to Bali lands, and it is the center of Bali's art and culture with many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You can discover the unique paintings of Bali that have combined the traditional art rooted from Hindu mythology and the contemporary paintings about everyday life. Ubut is a quiet village with a luxurious jungle and a peaceful rice field. It is only a few kilometers to cross, but anyone would fall in love with Ubut after taking a walk through it. Even a full month of stay would feel short at a place where art



맛있는 벽은 어느샌가 그들의 스케치북이 되었고
냉기로 가득한 벽은 깜짝 놀랄 만한 그림을 품고
거리를 색다르게 만들었다.



상해의 치솟는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한 예술인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한 타이강루 티엔즈팡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예술과 상술이 뒤섞여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골목 사이사이에는 중국 특유의 키치한 감성과 그 감성이 주는 독특하고도 저렴한 예술품들이 남다른 감동을 전해주기에, 어쩌면 한 번의 방문으로는 모자랄 수도 있다. 지하철로 도착할 수 있는 타이강루 티엔즈팡은 '상해의 인사동'이란 별명답게 좁은 골목길들이 미로처럼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데, 굳이 먹거나 사지 않아도 구경하는 재미가 넘쳐흐른다. 원래는 글밭 좋은 글쟁이들의 아지트였지만, 지금은 짧고 좁은 골목에 공방과 카페, 기념품 숍과 갤러리 등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하지만 누군가 붓글씨로 대충 쓴 갤러리 표시를 따라가 보면 '헉' 하고 놀랄 만한 민중예술이 버젓이 이방인들을 반겨준다. 또한 아기자기한 소품점들이 눈길을 끈다. 친구와 단둘이 걷기 좋은 거리, 작은 기념품을 구입하기에도 꽤 괜찮은 골목이다. S

is everywhere.

Taikang Lu Tianzifang has gathered artists who could not afford the sharply rising rent rates in Shanghai. It has combined art and business over time, but the alleys are still filled with the unique appearance of China.

Taikang Lu Tianzifang is a subway ride away from Shanghai. It has been nicknamed 'Insa-dong of Shanghai', and it has a maze of narrow alleyways that are filled with fun things to see without having to eat or buy anything. It used to be a hiding place of renowned writers, but it is now a home to countless small ateliers, cafés, souvenir shops, and galleries. The cute and humble souvenir shops are particularly attractive. It is a good place to take a walk with your friend and pick up some of the little souvenirs.

멈추지 않는 진화, 시간을 뛰어넘는 절정의 아름다움

옛 선인들은 소나무 곁에서 인생을 논하고 건강을 다지며 삶의 근본을 탄설히 했다.
현재를 사는 현명한 여인들은 적응의 기운으로 가득한 '진설'을 곁에 두고 인생 절정의 아름다움을 찬미한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부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진 설 클렌징 폼 Timetreasure Extra Creamy Cleansing Form EX

피부 위로 쌓인 하루의 노폐물은 물론
그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피부에 착감기는
크리미한 거품으로 개운하게 씻어낸다.
클렌징폼으로써 기분을 지킴과 동시에
귀한 적응의 송진 오일을 함유하여 풍부한
영양감까지 선사한다. 세안과 더불어
재빠르게 되찾은 유·수분 밸런스로
피부는 다시 생기를 되찾고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솔향은 힐링의 감성까지
전해준다(2월 출시 예정). **How to Use**
아침저녁 세안 시 손바닥에 적당량을
달어내어 물과 함께 충분히 거품을 낸다.
얼굴에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클렌징한
후 미온수로 여러 번 헹구낸다.



분리가 가능한 황동 비를
포함한 다용도 핸드크래프트
원형 트레이는 매뉴하.

핸드메이드 방식이 결합된
'Push' 시리즈의 브라스 접시는
FUNDAMENTAL by 모엠클렉션



진 설 수 Timetreasure Renovating Water EX

겨우내 메말랐던 피부에 톡톡 두드리니 온화한 듯 적극적인 적응 성분이
얼굴 전체로 퍼져나간다. 피부에 즉각적으로 흡수되어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한다. **How to Use** 아침저녁 윤조에센스 사용 후, 손바닥에 적정량을
취해 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여 얼굴 인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퍼
발라주고 가볍게 두드리며 흡수시킨다.

진 설 유 액 Timetreasure Renovating Emulsion EX

피부 결 따라 곱게 발리며 적은 틈새 하나 놓치지 않고 스며든다. 끈적임이나
답답함 없이 피부 보습막을 형성해 매끄러운 피부 결과 빛나는 피부 윤기를
선물한다. **How to Use** 아침저녁 진설수 사용 후, 손바닥에 적정량을 취해
손가락 전체를 사용해 얼굴 인쪽에서 바깥쪽으로 매끄럽게 퍼 발라준다.

진설에센스
Timetreasure Renovating Serum EX

마치 피부와 혼연일체되듯 밀착되는 놀라운 사용감에 반하고 나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피부의 방어력을 높이고 세월의 흔적을 이겨내는
효능에 다시 한 번 감탄하게 된다. 기쁨 있는 피부 생기. 진설에센스로
완성된다. **How to Use** 아침저녁 진설유액 사용 후, 손바닥에 적당량을
취해 손가락 전체로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 밀착력 있게 누르는
느낌으로 펴 바른다.



넓은 볼 형태의 방짜
주석 그릇은 아름다기

진설아이에센스
Timetreasure Renovating Eye Serum

산뜻한 에센스 제형과 골든아이케어마시저가 주름, 칙칙함은 물론 탄력까지
심화된 눈가 고민에 전방위적 솔루션을 제공한다. 한결 탄탄해진 눈가 피부로
얼굴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다. **How to Use** 아침저녁 진설에센스 다음 단계에
서 약자에 1회 사용량(1~2회 펄핑)을 덜어낸 후, 눈가 전체에 점을 찍듯이
고르게 나누어 부드럽게 펴 발라준다.

진설아이크림
Timetreasure Renovating Eye Cream EX

그물망의 존속한 제형으로 눈가 피부의 주름과 건조함을 케어하고 적층의
생명력으로 연약한 눈가 피부를 탄력 있게 다스린다. **How to Use** 아침저녁
진설에센스 다음 단계에서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눈 아래, 옆, 눈두덩 부분에
점을 찍듯 덜어낸 후, 양손의 중지를 사용해 부드럽게 발라준다.



브라스 소재로 제작된
코스터는 모두 아르프.

진설 크림
Timetreasure Renovating Cream EX

바르고 난 후, 아침에 일어나면 겨울 속 피부에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라게 된다. 밤사이 피부 속 깊이 스며든 적송과 송이의 생명력으로 세월의 흔적을 이겨내고 한결같은 젊은 피부를 선사한다. **How to Use** 아침저녁 진설아이에 센스나 진설아이크림 사용 후, 손바닥에 적당량을 취해 손가락 전체를 사용해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 바른다.



광택감이 있는 골드 캔들
훈디는 모두 리참 by 윤현앤즈



자연의 비밀스러운 기운과 생명력을 담다, 진설 라인 화장대 위에 놓인, 고운 듯 강인한 오라를 풍기는 진설 제품들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보배스럽고도 고결한 진설 珍雪. 무릇 사람은 '이름 따라간다'는 옛말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귀히디귀한 그래서 더욱 값진 진설 라인은 이름대로 보배로운 성분과 진귀함으로 피부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은 브랜드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얻은 최고의 안티에이징 성분인 적송 DAA는 피부에 격이 다른 효능을 전달하며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여성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이를 위한 오랜 노력의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30개월 이상 자란 적송에서 DAA의 함량이 4.8배 강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설화수만의 포제법, 취송정법取松精法으로 증기를 찌어 찌고, 다시 말리는 총 11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제거하고 33배 농축 강화시킨 가장 순수한 DAA 성분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듯 노력과 열정 그리고 지혜로 만들어진 진설 라인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다. S

Timetreasure Line – Capturing the secret energy and vitality of nature Timetreasure products in your powder room bring a smile to your face with a fine yet powerful aura. Embodying what is truly precious and fine, Timetreasure makes you nod to the old saying that “People live as much as their names.” The Timetreasure Line is priceless because it is extremely precious. It brings value and beauty to your skin with the ‘truly precious’ rare ingredients. The Red Pine DAA, the utmost anti-aging formula earned with the brand’s ceaseless efforts of not settling with only the current achievements, delivers incomparable efficacies to impress women around the world. The years spent with the best efforts to develop products were all worth it. The brand has discovered that DAA content is 4.8 times greater in the Red Pine that is more than 30 months old, while the purest DAA, concentrated 33 times with no impurities, can be acquired through 11 steps of refinement using the Red Pine Concentration Process™. This is Sulwhasoo’s original POJE Optimizing Process™ to steam and dry repeatedly. The Timetreasure Line, made with effort, passion, and wisdom, will continue to evolve.



비움과 채움 사이 설화수 밸런스 스파 Between emptying and filling - Sulwhasoo Balance Spa

새해, 새 마음 새 기분으로 활기찬 앞날을 열어가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공간을 소개한다.
한방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깊은 에너지를 전하는 설화수 밸런스 스파. 그곳에 가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설화수 밸런스 스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5길 18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월요일~일요일 10:00~21:00(매월 둘째 주 월요일 및 설 추석 당일 휴무)

설화수 밸런스 스파(Sulwhasoo Balance Spa)는 일상의 분주함 속에 흐트러진 균형을 되찾아주고 재충전을 선사하는 컨템포러리 한방 스파로, '비워야 채워지고 버려야 얻는다'는 금언을 경험하게 한다. 귀한 한방 성분과 에스테이션의 정성, 아시아의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리추얼을 통해, 심신에 쌓인 노폐물을 비워주고 홀리스틱 뷰티를 채워준다. 스파 프로그램은 그날의 컨디션이나 니즈에 따라 원하는 대로 MIX & MATCH(페이셜&보디) 또는 단독으로 트리트먼트받을 수 있다. 특히 새벽 숲의 평온하면서도 활기찬 기운을 담은 설화수의 대표 향인 윤조지향 트리트먼트는 몸의 축소판인 귀를 섬세하게 터치함으로써 몸 전체에 깊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시그니처 리추얼로, 스트레스를 완화해 심신의 밸런스를 맞춰준다. 트리트먼트가 끝나면 바쁜 고객들을 고려해 보양차와 스낵을 테이크아웃할 수 있도록 준비해 깊은 배려와 감동을 더한다. 설화수 밸런스 스파에는 깃어웨이 룸(Get Away Room)과 파크뷰 룸(Parkview Room) 등 두 가지 타입의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따뜻한 자연 채광이 그대로 전해지는 깃어웨이 룸은 혼자 또는 친구, 커플이 함께 스파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두한족열頭寒足熱의 한방 이론을 재해석한 트리트먼트를 전한다. 파크뷰 룸은 도산공원의 사계절을 내려다보며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껴보는 유니크한 스파를 경험할 수 있다. 설화수만의 한방 테크닉, 특별한 트리트먼트 룸, 편안한 음악이 어우러진 설화수 밸런스 스파는 새해 한 걸 가볍고도 에너지 넘치는 일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S

Sulwhasoo Balance Spa is a contemporary Korean herbal medicinal spa that restores balance in your body that has been agitated by your busy life. It rejuvenates you, filling you when you are empty and letting you gain when you discard. Precious Korean herbal medicinal ingredients, the care of aesthetician, and the original rituals inspired by the Asian tradition empty the impurities accumulated in your body and mind and rejuvenate the whole body with the Holistic Beauty. The spa program can be mixed and matched (facial & body) or chosen individually according to your condition and needs. In particular, the First Peace Scented Treatment, featuring Sulwhasoo's signature scent with the peaceful and vibrant energy of a morning forest, is the signature ritual that deeply energizes the entire body by carefully massaging the ears. It relieves stress and balances the body and mind. Sulwhasoo Balance Spa has two types of spaces, the Get Away Room and the Parkview Room. The Get Away Room is lit with warm natural sunshine and is a place where you can experience the spa by yourself, with a friend, or with your loved one. It is for the treatment that reinterprets the Korean medicinal theory of cold head-warm feet. The Parkview Room looks down on Dosan Park for your unique spa experience while enjoying nature right at the heart of the city. Sulwhasoo Balance Spa, will guide you this New Year to an energetic life.

귀한 분에게 전하는 고귀한 지혜의 산물

적송의 생명력으로 피부의 시간을 되돌리다

시간을 뛰어넘는 적송의 생명력이 오롯이 담긴 설화수 진설 라인. 2017년 새해를 맞아 두 가지 신제품을 출시, 더욱 강화된 라인업으로 강력한 안티에이징의 세계로 초대한다.

먼저 진설아이에센스는 적송의 피부 생명력 강화 안티에이징 성분 DAA(De-aging Active)와 섬세한 눈가 피부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골드아이케어마사지가 탄탄하게 빛나는 눈가 피부를 완성하는 프리미엄 토털 안티에이징 아이 에센스이다. 눈가의 힘을 되살리는 적송 성분, 눈가 주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홍삼 사포닌, 칙칙함을 케어하는 백삼 사포닌 그리고 적송의 효능을 상승시키는 '금' 소재와 기능적인 디자인의 마사지가 어우러져 주름, 탄력 저하, 칙칙함, 부기 관리 등 눈가의 모든 고민에 대응한다. 또 부드럽고 섬세한 제형이 효능 성분을 깊숙이 전달하여 눈가를 촉촉하고 편안하게 가꿔준다. 진하고 부드러운 감촉의 거품이 개운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진설클렌징폼은 귀한 송진 오일의 영양을 피부에 전하는 프리미엄 클렌징폼이다. 크림미한 거품이 피부에 착 감겨 노폐물과 메이크업 잔여물을 부드럽고 개운하게 제거하며, 적송에서 얻은 송진 오일이 세안 후 유·수분 밸런스를 정상화하고, 피부 천연 보습막을 회복시켜 수분을 잔뜩 머금은 듯한 피부로 케어한다. 청량한 적송의 향 또한 기분 좋은 경험을 선사한다.

설화수 진설아이에센스 20ml, 27만원대(1월 출시)/ 설화수클렌징폼 120ml, 6만5000원대(2월 출시 예정)



홀리스틱 뷰티 속에 온전히 머문 순간

설화수는 지난해 11월 23부터 25일까지 3일간 설화수 하반기 VIP 고객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진행된 이번 초청 행사에는 설화수 VIP 고객 30명(동반 1인 포함)을 초청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향유하면서 설화수의 홀리스틱 뷰티 철학과 브랜드를 경험하는 자리였다. 행사 시작에 앞서 고객 외부와 소지품 보관을 위한 코트룸 서비스, 원목 조형물로 감각적으로 꾸민 포토존 운영, 최신 리무진 운영 등 고객을 세심하게 배려한 설화수의 준비가 돋보였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관계자의 환영사로 시작된 행사는 먼저 설화수 브랜드와 플래그십 스토어를 소개하며 브랜드 철학과 비전 등을 고객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어 도슨트 투어를 통해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곳곳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스파 체험으로 심신의 피로를 풀며 안락한 시간을 보냈다. 또 국내산 제철 재료를 이용한 건강한 식단의 미니 뷔페,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안티에이징 메이크업 클래스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진설 7종을 비롯한 설화수 제품과 고객 사진을 담은 담례품을 전달하면서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설화수의 프라이빗하고 차별화된 고객 초청 행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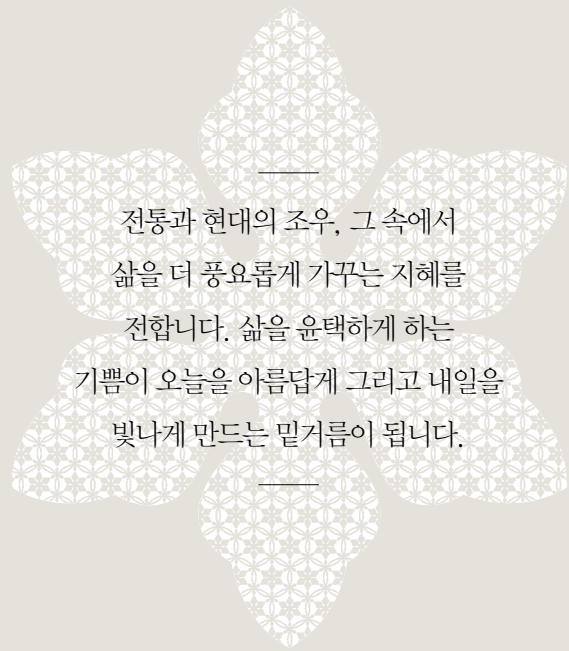
귀한 적송추출물을 피부빛에 더해
견줄 데 없이 탄탄하게 머금은 윤기를 완성하다
설화수 퍼펙팅쿠션 인텐스

힘을 잃은 피부에 더한 아름다움은 순간의 빛으로 사라집니다

적송의 생명력으로 피부를 탄탄하게 가꿔주는 설화수 퍼펙팅쿠션 인텐스

시간이 쌓아올린 고귀한 적송추출물이 피부에 힘을 채우고 피부를 맑게 하는 매화추출물과
피부를 밝혀주는 래디언스 펄 파우더가 더할 나위 없이 견고해진 탄탄한 윤기피부를 선사합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운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다
영
가



동서양의 조화가 고와라

양 금 플라워 떡 케이크

화려한 모양새와 달리 친근하고 다정한 맛을 지닌 양금 플라워 떡케이크. 천연 재료로 만들어 건강하게 즐길 수 있고, 맛과 멋이 함께 깃들여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한 송이, 두 송이 양금 꽃을 피우는 시간도 정겹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김민은 도움 주신 곳 따뜻한케이크(최수정)

떡은 우리 문화의 원형을 담고 있는 음식이다. 따라서 토착성과 전통성이 가장 깊은 음식이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떡은 결혼, 생일 등 경사가 있는 날이나 명절에 흥을 돋우고 잔치 분위기를 더하는 음식이었으며, 제사의 중요한 진설품陳設品이기도 했다. 또한 대표적인 별식이나 간식으로서 절기마다 제철에 나는 재료를 활용해 다양한 떡을 빚어 먹었다. 옛 속담에 '밥 위에 떡'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한 상태를 가리킨다. 서양에서도 특별한 날이면 케이크를 준비해 파티 분위기를 북돋운다. 특히 웨딩케이크의 의미는 매우 중요해 몇 층으로 쌓아 올려 화려하게 장식하며 신랑 신부가 미리 시식을 해보고 고를 정도다. 이러한 동양과 서양의 특별한 날 등장하는, 소중한 순간에 준비해 먹는 음식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것이 양금 플라워 떡케이크가 아닐까 싶다. 우리에게 친숙한 떡의 맛과 식감에 플라워 케이크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눈으로 한 번 그리고 입으로 또 한 번 황홀감을 경험하게 한다. 백설기를 기본으로 흰 강낭콩을 주원료로 만들어진 양금에 동결건조한 천연 재료를 넣어 색을 내는 양금 플라워 떡케이크는 건강 케이크로 어린이는 물론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제대로 배우려면 정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원데이 클래스만으로도 간단하게 솜씨를 낼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도전해볼 만하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차곡 차곡 꽃송이를 올려 본다

양금 플라워 떡케이크는 케이크의 몸체라 할 수 있는 설기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 멥쌀가루(200ml, 6컵)에 물(6~8작은술)을 넣고 손으로 잘 비벼 물과 가루가 잘 섞이게 한 후, 체에 두 번 내린다. 살짝 쥐어봐서 깨지지 않으면 설탕(6~7작은술)을 넣고 다시 고르게 섞어준다. 찜통에 시루 밑을 깔고 무스링에 재료를 넣은 후 위를 평평하게 정리한다. 센 불에 20분 정도 쪄 다음 불을 줄여 5분간 뜸을 들이면 백설기가 완성된다. 백설기에 단호박, 고구마, 블루베리, 딸기, 흑임자 등을 섞으면 다양한 색깔과 맛을 연출할 수 있다. 이제 양금을 만들 시간. 백옥 양금에 백년초, 비트, 자색 고구마, 단호박, 속 등 천연 가루 색소를 넣어 양금의 색을 만든다.

“인공색소는 원하는 색이 잘 나오지만, 천연 가루 색소는 조색하기가



양금 플라워 떡케이크 만들기

준비물 백옥 앙금, 천연색소, 스패틀러, 꽃 받침대, 찰주머니, 모양 깎지(장미103, 국화81, 안개꽃3, 잎사귀352), 꽃가위

- 1 멥쌀가루, 물, 설탕을 섞어서 찜통에 넣고 백설기 케이크 시트를 만든다.
- 2 백옥 앙금에 천연색소를 넣어 장미(핑크&화이트 투 톤)와 국화(옐로&화이트 투 톤)의 색을 만든다.
- 3 찰주머니에 만들고자 하는 꽃의 모양 깎지를 끼운 후 앙금을 넣고 꽃 받침대 위에 꽃을 파이핑(꽃 기둥을 먼저 만든 후 꽃잎을 한 잎 한 잎 더해 모양을 만듦)한다.
- 4 완성한 꽃은 꽃가위를 이용해 백설기 케이크 시트 위에 올린다. 크레센트 스타일 아레인지는 케이크 시트 한쪽에 꽃으로 작은 삼각형 2개를 나란히 만든 후, 위에 다시 꽃을 얹어 연출한다.
- 5 장미와 국화 사이의 빈 곳에 잎사귀와 안개꽃을 넣어 장식해 완성한다.

베이킹 스튜디오 '따뜻한케이크' 클래스: 원데이 클래스와 정규 과정이 있으며 양금 플라워 떡케이크, 버터 크림 케이크, 롤 케이크 등을 배울 수 있다.
 (첫 번째 플라워 케이크)의 저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중국에도 스튜디오를 오픈하여 따뜻한케이크의 스타일을 전하고 있다(문의: <http://blog.naver.com/warmtudomi>).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넣어보며 원하는 색을 만들어야 합니다. 초보자라면 앙금에 흰색 인공색소를 넣어 색이 잘 나오도록 기본 바탕색을 만든 후, 천연색소로 컬러를 조절하면서 감을 익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베이킹 스튜디오 '따뜻한케이크'를 운영하는 최수정 대표는 양금 플라워 떡케이크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앙금의 색을 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색 배합이 좋을 때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케이크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꽃 만드는 과정을 '파이핑'이라고 하는데, 파이핑하는 손놀림에 따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 모든 배움이 마찬가지로 겐지만 연습량에 따라 그 기량은 확연하게 달라진다. 제일 인기가 많고 먼저 배우는 것이 장미와 국화. 이후 능숙해지면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러넨쿨러스, 해바라기, 데이지, 수국 등을 만들어 케이크에 화려하게 수놓을 수 있다. 꽃을 모두 완성하면 설기 위에 꽃을 얹어 장식하는 '어레인지' 작업을 한다. 블로섬 스타일, 돔 스타일, 리스 스타일, 크레센트(초승달 모양) 스타일 등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차곡차곡 꽃송이를 올리면 양금 플라워 떡케이크가 아름다운 자태를 옷이 드러낸다. 또한, 컵케이크처럼 미니 설기를 만들어 작은 꽃들로 촘촘하게 장식하면 또 다른 매력의 양금 플라워 떡케이크가 탄생한다.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시간
행복한 순간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케이크

우리나라의 전통 정서가 담겨 있으면서도 요즘 트렌드에도 뒤처지지 않는 양금 플라워 떡케이크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지만 맛 또한 좋기 때문이다. 앙금의 그윽한 단맛과 떡의 담백하고 쫄깃한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최근 양금 플라워 떡케이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어, 일반 케이크보다 다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찾는 이가 많다. 양금 플라워 떡케이크는 그날 만들어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떡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굳기 때문에 다음 날에는 맛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불가피하게 모두 소진하지 못했다면, 떡케이크 시트 부분과 앙금 부분을 분리해 작게 나누어 냉동실에 얼려서 보관한다. 나중에 꺼내어 떡은 다시 찌서 먹고, 앙금은 서빙처럼 먹을 수 있다.

하얀 백설기 위에 올린 고운 색의 양금 꽃. 먹기에 아까울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양금 플라워 떡케이크는 특별한 날 그 자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며 행복한 기운을 전한다. 맛과 멋이 담긴 양금 플라워 떡케이크와 함께 새해의 시작을 아름답게 기념해보면 어떨까. S

삶의 매 순간 신성함이 피어오르다 Holiness blooms in every moment of life

고려 시대 선조들은 왕실 행사와 각종 의례 그리고 일상에서 여가를 즐길 때 향을 피웠다. 의례에서는 시작을 알리기 위함이었고, 일상에서는 몸과 마음에 부정不淨이 깃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향이 피어오르면 삶도 충만해졌다.

에디터 윤연숙 도움 주신 곳 국립중앙박물관, 이상욱 작가, KCDF

향로는 쉽게 말해 향을 피우는 그릇으로 '훈로薰爐'라고도 한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고, 해충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며, 공식적인 의례나 종교의식을 행할 때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향을 피웠다. 또 향은 마음의 때까지도 말끔하게 씻어준다고 하여, 향을 피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었다고 한다.

국보 60호 <청자사자개향로>는 화로에서 피운 향이 뚜껑의 구멍을 통해 사자의 입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졌다. 고려청자의 전성기였던 12세기에 제작된 향로로, 고려청자 특유의 아름다운 비색과 더불어 세련된 조형으로 고려 공예의 높은 솜씨를 엿보게 한다. 뒷다리를 구부러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 크고 둥그랗게 뜬 눈에 철화 안료로 표현된 눈동자, 낮게 숙이고 있는 귀, 등에 올려붙인 꼬리 등이 매우 친근감 있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고려 시대에 널리 퍼졌으나 이후 맥이 끊긴 흑자黑磁의 맥을 잇는 이상욱 작가의 <향로>는 형태도 아름답지만 오묘한 컬러가 특히 매력적이다. 다루기 힘든 재료인 천목 유약을 사용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빛어낸 향로는 검은 빛과 푸른빛이 동시에 감돌며, 화려하게 빛나는 특유의 색감으로 어느 도자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개성과 감동을 전한다.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향을 피우는 시간을 가지기에 좋은 계절이다. 답답한 실내 공기에 신선함을 채우고, 몸과 마음에 신성함을 담아보자. 무엇이든 긍정의 기운이 피어오를 테니. S

Since the ancient times, incense has been burned in order to deodorize the places where many people gather, protect the human body from harmful insects, and create a holy mood for official rituals or religious ceremonies. Burning the incense has been naturally established as a culture because the incense is believed to cleanse the mind.

<Celadon Incense Burner with Lion-Shaped Lid> is known as National Treasure #60, and it is designed to release the incense through a hole on the lion's mouth, which is located on the lid. It was created during the 12th Century when Goryeo Celadon was at its economic importance. The beautiful celadon blue of Goryeo Celadon and its sophisticated design show us the exquisite craftsmanship in Goryeo. Artist Sangwook Woo, who continues the tradition of black porcelain that was widely popular during the Goryeo Dynasty, created <Incense>, which is not only beautiful in appearance, but also attractive with its mysterious colors. The contemporary designed incense with tianmu lacquer, which is difficult to handle, appears both black and blue. The captivating luminous colors have more personality and impression than any other pieces of porcelain. In welcoming the New Year, it is appropriate to take some time to burn the incense. Fill the stuffy indoor air with freshness, and your body and mind with purity. You will be surrounded with the energy of positivity.



<청자사자개향로靑磁獅子蓋香爐>
국보 60호, 높이 21.2cm, 입자름 11.1cm, 12세기 고려



<향로>
이상욱, 2014



〈조선의 왕, 뉴욕에 가다〉의 한복 패션쇼를 위해 정재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헤어 장신구.

우리 시대에 사랑받는 전통을 꿈꾸다

주얼리 디자이너 정재인

드라마, 영화, K-POP 등 분야를 막론하고 사극, 시대극, 현대극, 시상식 등 장르를 넘나들며 상황에 꼭 들어맞는 주얼리를 탄생시켜 미학을 더하는 정재인 디자이너.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헤어 장신구는 그가 업을 이어가고, 천착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김민은

영화 〈사도〉, 〈암살〉, 〈아가씨〉를 비롯해 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 〈별에서 온 그대〉,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화랑〉 등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정재인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 탄생한 파인 주얼리와 전통 장신구를 만나볼 수 있다. 화려한 무대 위 K-POP 가수들이 착용한 트렌디한 액세서리도 그의 솜씨다.

세계가 감탄하는 장신구를 만들어온 김민휘 작가가 바로 정재인 디자이너의 어머니이기에, 어쩌면 그가 걸어온 길이 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전통 장신구에 대한 관심을 명확한 확신으로 바꾸고 업을 삼은 데에는 남다른 계기가 있었다. 2011년 세계적인 문화의 전당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열린 〈조선의 왕, 뉴욕에 가다〉 행사에 참여해 그만의 감각이 담긴 장신구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한국 장신구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에서 이끌어낸 것. 〈조선의 왕, 뉴욕에 가다〉는 설화수가 공식 후원한 행사로, 한국의 깊이 있고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한복과 한식을 통해 해외에 알리는 자리였다. 이때 한복 패션쇼를 위해 디자인한 조바위와 갓 장신구는 그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안겨준 애장품이 되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세계적일지 가늠하기 어려워 항상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좋은 기회를 통해 한식과 한복, 한국 장신구가 어우러져 외국의 명사들 앞에 소개됐는데, 극찬을 받았죠.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스타일리스트이자 높은 안목을 가진 미국 패션계 거물 패트리샤 필드가 제

게 꼭 해외 진출을 해보라고 권했어요. 그때 든 생각이 ‘한국적인 디테일을 담아 외국에서도 사랑받는 장신구를 디자인해야겠다’였어요. 전통도 발전이 있어야 현대인의 시각에서도 아름답게 느껴질 테고, 그래야 계속해서 전통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그는 이 행사에서 얻은 자신감과 영감으로 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 참여하게 되었고, 큰 호평을 받았다. 이후 그가 참여하는 작품마다, 무대마다 그의 장신구는 빛을 발했다.

“디자인에 앞서 작품에 관련된 사람들, 예를 들면 배우, 스타일리스트, 작가 등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소통하고 의견을 수용하다 보면 영감이 떠오르고 정답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예쁘다는 피드백이 전해질 때 보람되고 감사해요.”

정재인 디자이너는 자신의 작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극의 전개를 돕는 소품에서 진화해 부가 이익을 발생시키고 더 나누는 것,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장신구 발전 기금을 마련하고 더 좋은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게 돕는 것, 이런 일련의 일들이 해외에서도 긍정적으로 발현되고, 나아가 국격을 높이는 데도 일조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아름다움이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테니까. S



시간이 일궈낸 추상적 흔적에 사로잡히다

사진, 회화, 옷칠, 설치, 영상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작업을 펼쳐온 허명욱 작가가 개인전 <칠하다(Overlaying)>를 통해 또 하나의 시간 예술을 선보였다. 오랜 시간 다양한 색을 중첩하여 탄생한 옷칠 회화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시간의 무게를 경험하고 사유하게 한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도움 주신 곳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허명욱 작가에게 시간이 만들어내는 흔적과 색은 사물 또는 존재가 겪는 소멸에 대한 성찰을 투영할 수 있는 최적의 매개물이다. 그리고 옷칠은 작가의 사유를 숙성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표현 매체이다. 페인팅의 재료로 물감이 아닌 옷칠을 선택한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허명욱 작가는 인간이 설정한 인위적인 시간과, 이와 대조를 이루는 자연의 의해 소멸로 향하는 시간 그리고 이들이 함께 존재하는 총체적인 시공간의 표현을 추구했다.

<칠하다>전은 이런 허명욱 작가의 작품 세계를 옷칠 회화 신작 10여 점과 설치, 영상, 사진 작품 등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다. 전시명 '칠하다'는 '면이 있는 사물에 물감 따위를 바르다, 도포하다'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더 나아가 작가가 무수히 반복하는 '시간의 중첩을 통한 칠'을 의미한다.

허명욱 작가는 옷에 색을 더해 캔버스나 금속 화판 위에 덧칠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옷은 한 번 칠하면 하루라는 말리는 시간이 필요하

다. 날을 달리하면서 칠하고 말리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작품 한 개를 완성하는 데 보통 캔버스는 3~4개월, 금속 화판은 7~8개월이 걸린다. 또 옷의 특성상 1년 내내 30도 이상의 온도와 70퍼센트 습도를 유지하며 고온다습한 여름과 같은 실내 환경에서 작업해야 한다. '생칠(불에 달이지 아니한 옷칠)'에서부터 수십 번의 '흑칠(철에 산화 반응시켜 검게 착색한 정제칠)'을 마치면 꼬박 서너 달이 흐른다. 흑칠 이후, 금속 캔버스에 처음 입힌 삼베를 절개하고 그 면에는 마감칠인 '이가지칠'이 올라가면서 화면상의 시간은 정지한다. 이 정지한 시간이 작가가 설정한 인공적인 시간을 대변한다면, 반대편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영역은 자연적인 시간을 은유한다. 예를 들어, <무제> 시리즈 작품 3점에서 순도 99.9퍼센트의 변치 않는 금박을 사용했는데, 시간의 제약 앞에서 변치 않는 것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상징하는 '금'은 채도가 높아지고 색이 명료해지는 옷칠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간색'과 나란히 배치되어 대조를 이룬다.



1 <무제>, 허명욱, 옷칠, 물푸레나무, 100.8×330×15cm, 2016

2 같은 크기의 네 개의 작품을 일렬로 배치해 한 작품처럼 보이는 작품들 <무제>, 허명욱, 캔버스 위에 옷칠, 150×210cm, 2016



옷칠은 옷나무의 수액을 식기와 각종 가구에 칠해 견고함을 더하고 부패를 막은 것이 그 시초다. '칠'의 한자 표기는 옷나무를 뜻하는 '漆'이다. 그만큼 옷칠은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공예 기법으로, 내구성과 기능성은 물론 고급스러운 광택과 은은한 색감으로 미학적인 표현이 가능한 재료다.

이렇듯 한국 공예의 역사 속에서 생활 목가구와 칠기 제작의 마감 도료에 머물렀던 옷칠은 허명욱 작가의 화면에서 '시간의 엄중성'을 기록하는 수단이 되었다. 옷칠은 일반 캔버스뿐만 아니라 작가의 물성에 대한 실험으로 제작된 금속 화판 위에서도 적용하며 다양한 색이 중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중첩된 흔적들은 화면 위 두 개로 분할된 영역들을 가로지르는 경계에서 도드라지는데, 관람객들은 쌓아 올려진 색층을 보며 시간의 무게를 경험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시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더불어 주어진다. 이번 작품 제목은 모두 '무제'이다.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고 자신만의 감성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한 작가의 배려다.

옷칠 회화뿐만 아니라 총 187명이 6개월이란 시간 동안 각각의 장소와 쓰임에 따라 사용한 187개의 옷칠 트레이 설치 작업이 눈길을 끈다. 187개의 옷칠 트레이는 허명욱 작가가 완성과 동시에 사진으로 기록한 후 성별, 나이, 직업이 다른 국내의 지인들에게 나누어주어 6개월간 자유롭게 일상생활 속에서 각자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다가 돌아온 사물들이다. 사용자들의 시간을 품은 채 돌아온 트레이는 인위적 시간을 대변한다. 한편, 또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동일한 형태의 옷칠 트레이 설치 작업은 작가의 작업실 뜰에서 수개월간 자연의 빛과 바람을 겪으면서 시간을 체험한 사물들의 총체다. 이 두 설치 작품들의 병치를 통해 허명욱 작가는 인간의 환경에 의한 인위적 변화와 자연적 변화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시간의 추이와 흔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진 작업과 설치 작업의 대조를 통해서도 이번 전시가 이야기하는 시간성에 대한 작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이전 작업들에서는 자연적 시간과 인간의 손길을 거친 후 기호화된 사물에 대한 기록을

캔버스에 담았다면, 이 작품에서는 역으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한 시간을 하나의 설치 공간에 구성하여 관객의 사유를 유도한다.

허명욱 작가는 매일 공들여 옷칠을 하는 순간에 좋은 생각을 담는다는 마음으로 붓질을 한다. 자기 정화와 마음 수련의 태도를 취하고 무수한 행위의 축적으로 수십 개의 색을 같은 자리에 켜켜이 쌓아 올린다. 사물의 현상적 측면이 아닌 본질을 보는 시선에 접근한 작가의 독창적 회화 표현을 엿볼 수 있다. 허명욱 작가가 수없이 반복하며 창조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좀 더 근원적인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을 담아 갈 수 있다. S

- 1 187명의 지인들에게 나누어졌다가 돌아온 187개의 옷칠 트레이.
- 2 두 개로 분할된 영역들을 가로지르는 경계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시간의 무게를 경험하게 한다.
- 3 옷칠로 완성된 모던한 콘솔.
- 4 작가의 작업실 뜰에서 수개월간 자연의 빛과 바람을 겪으면서 시간을 체험한 옷칠 트레이를 촬영한 작품. <무제>, 허명욱, 프린트, 150×210cm, 2016

식탁 위, 미소 한 조각

식탁 위에 꼭 그릇만 놓이는 건 아니다. 그릇과 매트 그리고 작은 화병과 조명까지 식탁 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소품들.

에디터 권자에 사진 김민은 스타일리스트 황남주(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장세희



식탁 위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적동에 칠보 범랑, 황동 소재의 와인 캔들 홀더 시리즈는 Haäm.



예술적 미감과 색감으로 넘치는 김준용 작가의 블로잉 유리 화병은 'Orange in Blue' by 이도아틀리에.



가족 모두 모여 차 한잔으로 훈훈함을 나눌 수 있다. 독특한 형태의 은으로 만든 티 스트레이너는 아름다지.

아직은 많이 춥습니다. 어깨 위로 살포시 내려앉은 눈을 털어내곤 중종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 바로 주방이 아닐까요? 얼었던 몸과 마음을 가뿐하게 녹여줄 따뜻한 차 한 잔 만들어 식탁에 앉아 따뜻한 향과 기운을 느낍니다. 끼니때만 모이곤 이내 휴대폰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가 대화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면, 식탁을 새롭게 꾸며보면 어떨까 합니다. 색다른 감성과 따스한 온기로 꾸민 식탁에 가족 모두가 모여들 테니 말입니다. 밥만 먹는 곳이 아닌 서로의 소통을 위한 작은 아지트 같은 느낌이랄까요. 모노톤의 그릇보다는 색채감과 문양이 있는 그릇들로 세팅해보는 것도 겨울철 입맛을 살리는 센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멋진 소품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식탁 분위기는 화사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소재 자체에서 오는 자연스러움은 물론이고, 실용적인 기능까지 겸비한 자연 모티브의 소품이 가득한 주방은 소중한 가족들에게 생활 속 즐거움과 새해의 기운을 선사할 것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식탁에 모두 둘러앉아 덕담 한마디씩 주고받는 즐겁고도 온화한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S



테이블 한 가운데 단아하게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는 세라믹 찻잔은 Areat.



심플한 디자인이 멋을 더한다. 옷칠이라는 전통 방식에 작가만의 모던한 컬러가 가미된 트레이는 오유미 작가 작품.



작은 집을 볼 때마다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한옥 모양의 실크 양면 코스터는 조현하 작가 작품으로 해브빈서울.



전통의 감성이 흐르는 그물 접시 패턴으로 여러 개의 접시를 모아 장식처럼 사용할 수 있다. 우일오.



한옥 창살 무늬의 비례를 응용한 문구류로 색감과 형태가 매우 현대적이다. 김대건 작가 작품으로 로얄갤러리.



칙칙했던 식탁 위에 봄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듯하다. 초록색 나비 문양이 새겨진 사자 함은 빌라도브.



황동과 가족 소재의 원형 트레이로 분리가 가능한 황동 바를 두어 공간을 분리할 수 있다. 메누하.



같이 놓으면 꽃이 핀 듯하다. 정갈한 느낌의 네 잎 꽃 모양의 5절 나뭇 접시는 ARIA by 해브빈서울.



나무 테이블 위에 전사를 해놓아도 예쁘다. 동에 니켈을 도금한 스푼과 나이프는 김현성 작가 작품으로 아원공방.

머리 위, 소담한 멋을 수놓다

현대 수공예의 절정을 머리 위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독특한 색감과 디자인까지 가미되어 더욱 시선을 모으는 헤어 장신구들의
 소소한 모임.

에디터 권자에 사진 김민은 스타일리스트 황남주(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장세희



소가죽과 18K 골드 스틱이 결합된 팔찌로
 손목은 물론 예지 있는 머리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먼데이에디션



마치 음이 들리는 듯하다. 베토벤 교향곡
 〈합창〉의 웅장하고 성스러운 리듬을
 시각화한 티아라로 박보영 작가 작품.



손으로 모든 것을 직접 만드는 작가의
 감성이 느껴진다. 은에 비취 호박
 산호를 붙인 원석 빛은 아원공방.

파란 하늘보다는 회색빛 하늘이, 거리의 나무들은 단풍의 화려함 대신
 짙은 고동색으로, 그렇게 무채색으로 변해가는 겨울이네요. 그러다
 눈이라도 내리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면서 왠지 모를 포근함이 감돌
 아 겨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옷의 컬러 역시 튀지 않는 무난
 한 톤을 많이 입는다면, 헤어 액세서리만큼은 다채로운 색감을 골라
 보는 건 어떨까요? 마치 흑백사진 속 빨간색 열매의 그 세련된 느낌처
 럼! 옛 여인들의 머리 장신구를 살펴보면 정교하고 예쁜 디테일에 절
 로 감탄이 나옵니다. 금과 은 그리고 옥 소재로 만들었던 헤어 장신구
 와 달리 현대에 와서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고, 그에 따라 독특한 스타
 일로 연출하는데요. 겨울에는 옷의 부피가 커지는 만큼 너무 볼륨
 이 큰 것보다 볼륨은 작지만 디테일이 가미된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대
 량으로 똑같이 찍혀 나오는 기성품보다는 작가의 정성이 그대로 배어
 있는 헤어 액세서리라면 더욱 좋겠죠. 단순한 장신구 이상으로 작가의
 손맛이 느껴지는 작품이니까요. 자수 헤어밴드, 금속 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헤어 핀과 소소한 밴드에도 작가의 개성이 빛을 발합니다. S



레드와 그린의 컬러 배합. 진주가
 어우러지며 한층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
 민휘아트주얼리.



한복은 물론 모던한 슈트나 드레스에도
 잘 어울린다. 전통 장식으로 시선을
 끄는 딸잠 머리띠는 량랑.



마치 꽃 한 송이가 묶음 머리 위에서
 피어나는 듯하다. 골드 색 꽃이 달린
 머리끈은 유니스제이.



긴 머리를 땋아 머리 끝에 묶는 형견이나
 끈을 묶던 여인의 탕기가 모던하게
 만들어진 공주 배씨댁기 량랑.



세상에 이렇게 독특한 헤어핀이 있을까?
 실크 소재에 손바느질한 책주름 헤어핀은
 조하나 작가 작품.



실크사로 감싼 원형판 위에 원석을
 스북하게 구성한 전통 색이 강한 실크
 비녀. 조은희 작가 작품으로 kcd.



마치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시각화한 골드 핀은 박보영 작가 작품.



비녀의 머리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데
 호두의 모양을 닮은 호두 비녀는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량랑.



바느질공예로 많이 사용되는 호박
 모티브를 전목시켜 만들었다. 한복
 원단에 진주가 박힌 일자 핀은 kcd.



〈Sulwhasoo〉 독자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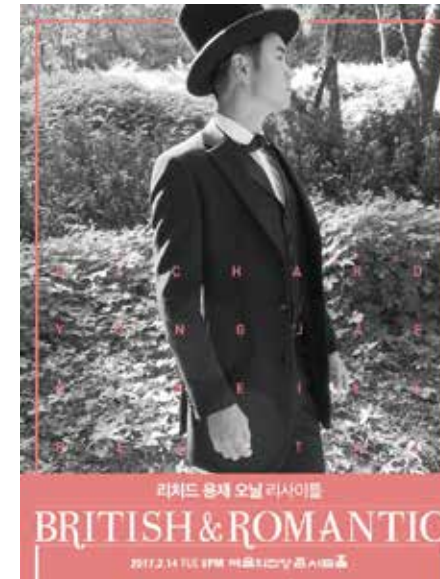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엽서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9p 독자 선물 지면을 참조하세요.

두 명의 배우와 음악만으로도 충만한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창작 뮤지컬 〈라흐마니노프〉가 새해를 맞아 앙코르 공연을 펼친다. 러시아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가 현대에 와서 뮤지컬을 만들었다면 바로 이런 느낌이 아닐까.

뮤지컬 〈라흐마니노프〉는 지난해 국내에서 첫선을 보인 작품으로,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가 슬럼프에 빠져 절망하던 시기, 정신의 학자 니콜라이 달 박사와 만나게 되면서 치유해가는 과정을 그렸다. 라흐마니노프의 명곡을 뮤지컬 넘버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음악적인 부분에서 평단과 관객들의 큰 호평을 받은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특히 이야기를 섬세하게 풀어낸 김유현 작가는 '2016년 에그린 어워드'에서 극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피아노 연주와 '작은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현악 4중주가 무대 위에 자리하며 고품격 라이브 연주로 극의 감동을 더하고, 마치 클래식 공연을 관람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번 공연은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이 주는 힘과 작품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절망에 빠져 있는 많은 이들에게 '당신은 이미 사랑받는 사람입니다'라는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한마디를 건네며 마음을 어루만지는 선물 같은 공연이 될 전망이다. 또 초연 캐스팅 그대로 돌아오며 한층 깊어진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일시 2월 4일~3월 12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문의 02-588-7708



리처드 용재 오닐 리사이틀 〈BRITISH & ROMANTIC〉

리처드 용재 오닐이 4년 만에 리사이틀을 펼친다.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스타이면서 비올리스트이자 아티스트로서 확고한 정체성과 목표를 지닌 그가 얼마나 더 깊고 다양해질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다.

전작 〈Solo〉에서는 오직 비올라 한 대만으로 제대로 된 깊이와 테크닉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음반 발매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올라로 신작 출시를 이어가는 등 클래식계에서 확고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리처드 용재 오닐. 지난해 6월에는 에네스 파르렛 멤버로서 2주간 베토벤 현악 4중주 전곡 연주를 평단의 호평 속에 성공리에 마쳤다. 용재 오닐의 다음 행보가 바로 이 〈브리티시 비올라〉다. 이 앨범은 앤드루 데이비스 경과 영국이 자랑하는 전통의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월튼 비올라 협주곡〉으로 시작한다. 비올라 협주곡 중 가장 핵심적인 레퍼토리로 여겨지는 이 곡의 녹음은 2014년 BBC 심포니 내한공연 협연 때 성사되었다. 세계 정상의 지휘자, 오케스트라와 함께 비올리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곡을 녹음한다는 것이 그에게 매우 큰 의미가 되었다고. 이어 '2014 아르투르 루빈슈타인 콩쿠르' 은메달리스트이자 앙상블 디토의 피아니스트로 맹활약 중인 스티븐 린과 벤자민 브리튼, 요크 보웬, 본 윌리엄스 등 영국 작곡가 특유의 시크하고 낭만적인 매력을 가득 담은 음악이다. 이 멋진 곡들은 스티븐 린과 함께 리사이틀에서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이다. 일시 2월 14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1577-5266

뮤지컬 〈보디가드〉



영화 〈보디가드〉가 원작인 작품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 최초 공연이다. 스토키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당대 최고의 여가수 레이첼 마론(정선아, 이은진, 손승연)과 그의 곁을 한결같이 지키는 보디가드 프랭크 파머(박성웅, 이종혁)의 러브스토리를 그대로 가져왔다. 일시 ~ 3월 5일까지 장소 LG아트센터 문의 1544-1555

콘서트 〈고상지 신년 콘서트 '출격'〉



반도네오니스트로 탱고 연주자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로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활동이 이어온 고상지의 신년 콘서트. 반도네온 연주자, 작곡가, 프로듀서 등 다양한 음악 활동으로 탱고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 온 그의 감미로운 연주를 마주 할 수 있다. 일시 1월 6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문의 02-563-0595

연극 〈우리의 여자들〉



프랑스 최신 연극 〈우리의 여자들(Nos Femmes)〉이 대학로 연극 무대에 오른다. 프랑스 최고 권위의 몰리에르상 작가상을 2회 수상한 에릭 아수(Eric Assous)의 작품으로, 극과 극의 개성을 가진 오랜 친구 폴, 시몽, 막스에게 벌어진 허룻밤 소동을 그린 유쾌한 코미디다. 일시 ~ 2월 12일까지 장소 수현씨어터 문의 1544-1555

책 〈저도 중년은 처음입니다〉



30대를 지나 40대의 경험과 변화를 고스란히 통과하는 몸과 마음의 풍경을 담담하게 풀어낸 에세이다. 결코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지만 노년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 그 어중간한 자리에서 겪어야 하는 당혹과 비애의 측면을 솔직담백하고도 재치 있게 펼쳐 보인다. 지은이 사카이 준코 출판사 바다출판사

전시 〈클림트 인사이드〉



풍부한 황금빛으로 관능과 극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클림트의 작품 세계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미디어아트전. 클림트의 색감을 현대적으로 되살린 셀터 체험존과 VR(가상현실) 체험존을 통해 환화를 직접 듣고, 보고, 만지며 또 다른 감동을 전달한다. 일시 ~ 3월 3일까지 장소 성수 S-FACTORY 문의 1522-1796

전시 〈훈데르트바서 'The Green City'〉



훈데르트바서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다리가 되고자 했던 화가이자 건축가, 환경운동가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작 〈타시즘을 위한 오토주〉, 〈노란 집들-함께하지 않는 사랑을 기다리는 것은 아름답다〉를 만나볼 수 있다. 일시 ~ 3월 12일까지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문의 02-555-3945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클렌징 라인

궁중비누
홍삼 성분을 원료로 정성스레 숙성시켜 피부 영양을 유지해 주는 고급 클렌징 비누
100g×2 | 42,000원대

순행클렌징오일
산뜻한 사용감의 오일 이 얼굴에 부드럽게 롤링되는 저자극 클렌징 오일
200ml | 40,000원대

순행클렌징폼
피부 노폐물을 말끔히 없애고 피부의 촉촉함은 유지해주는 저자극 클렌징 폼
200ml | 35,000원대

에센셜 라인

윤조에센스
자음단*이 건강한 피부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
60ml | 90,000원대
90ml | 120,000원대

자음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히 적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젤 타입 스킨
125ml | 57,000원대

자음유액
매끄럽게 펴 발리고 알맞게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소프트 로션
125ml | 63,000원대

윤결에센스
피부를 촉촉히 가꾸어 매끈하고 단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피부 결 정리 에센스
50ml | 125,000원대

섬리안크림
눈가 피부에 알맞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 115,000원대

탄력크림
지선체**가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탄력강화크림
75ml | 105,000원대

스페셜 라인

미안피니셔
앞서 바른 성분의 효능은 올리고 피부를 감싸 윤기 보호막을 형성하는 스킨케어 파니셔
80ml | 90,000원대

소노보크림 (TFF 40 / SPF 30 / PA++)
빛과 적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안티에이징 데이크림
50ml | 150,000원대

에소침크림&패치
입가 팔자 부위를 탄력 있게 케어해주는 크림&패치
25ml(크림)+10개(패치) | 200,000원대

명의본초염플
명약진** 성분이 피부 본연의 방어력을 강화해 주는 고농축 염플
7ml×5 | 200,000원대

탄력넥크림
지선체**와 5가지 한방 오일로 연약한 목 피부를 탄탄하고 매끄럽게 가꾸어주는 안티에이징 넥크림
60ml | 80,000원대

자정 라인

자정수
피부를 촉촉하고 깨끗하게 정돈해주는 마백 효능을 끌어올려주는 젤 타입 마백 스킨
125ml | 65,000원대

자정수액
피부 위로 촉촉함이 부드럽게 퍼져 맑은 안색을 선사해주는 마백 로션
125ml | 70,000원대

자정마백에센스
백상 마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주는 브라이트닝 에센스
50ml | 210,000원대

자정마백스파트리트먼트
가미·잡티 생성을 억제하고 주름 유발 환경까지 케어하는 국소 부위용 스파 트리트먼트
25ml | 130,000원대

자정마백아이트리트먼트
쿨링 자막 아몰리케이드와 매끄러운 텍스처가 눈가를 환하게 밝혀주는 마백 아이트리트먼트
15ml | 75,000원대

자정마백크림
브라이트닝 활성 성분이 촉촉하게 빛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브라이트닝 크림
50ml | 135,000원대

자정마백마스크
고밀착 시트가 즉각적으로 맑은 안색과 탄력감을 선사해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
5매 | 65,000원대

삼백크림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예방해줄 뿐 아니라 잡티 없이 깨끗한 피부를 가꾸어주는 마백 선크림
40ml | 75,000원대

어민에센스
피부 밀도를 조절하게 가꾸어주는 초기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130,000원대

어민마스크
젤레 열매 발효 성분이 피부를 단단히 여며주는 안티에이징 마스크
5매 | 40,000원대

자여진에센스
주름은 밀어내고 탄력은 끌어올려주는 인삼 캡슐 타입 에센스
35ml | 150,000원대
50ml | 180,000원대

자음생진본유
인삼 종자유가 빠르게 흡수되어 극심한 피부 건조를 해소하는 고농축 에센스 오일
20ml | 120,000원대

자음생이이크림
인삼 기능성 성분이 또렷하고 힘있는 눈매로 가꾸어주는 아이크림
25ml | 180,000원대

자음생크림 오리지널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250,000원대

자음생크림 라이트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신뜻한 질감)
60ml | 250,000원대

수율미스트
즉각적인 청량함과 수분 공급으로 피부에 평온함을 주는 수분 진정 미스트
100ml | 42,000원대

수율선풍루이드
(SPF 50+ / PA+++)
수분 공급,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케어하는 수분 선풍루이드
50ml | 55,000원대

동백유오일
천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오일
100ml | 35,000원대

에센셜밤
홍화의 고농축 보습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나게 가꾸어주는 멀티 보습 밤
15g | 40,000원대

연성바디크림
노화로 인해 초트러진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바디크림
200ml | 80,000원대

진설 라인

진설수
적응 성분이 즉각 흡수되어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스킨
125ml | 110,000원대

진설유액
적응 성분이 피부 결을 매끈하고 유연하게 가꾸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에멀전
125ml | 120,000원대

진설에센스
적응의 생명력과 항산화 에너지가 피부 방어력을 높이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30,000원대

진설아이크림
눈가 피부의 주름과 처짐현상을 케어하는 프리미엄 토달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 270,000원대

진설크림
적응과 송이의 생명력으로 한결 깊은 젊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토달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450,000원대

진설플클렌징
진하고 부드러운 감촉의 거품이 개인화와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클렌징폼
120ml | 65,000원대

진설아이에센스
적응 성분과 글라이세어 마시지가 빛나는 눈가 피부를 강화 리프라이징 토달 안티에이징 아이에센스
20ml | 270,000원대

다함설크림
단섬과 홍삼이 젊음의 에너지를 선사하는 피부 강화 리프라이징 토달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650,000원대

설안팩
백옥의 기운으로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수면팩
80ml | 85,000원대

옥용팩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 오프 타입 팩
150ml | 42,000원대

청운수딩팩
즉각적인 청량감을 제공하여 피부 진정 효과를 주는 청매실 성분 함유 수딩 팩
80ml | 42,000원대

에올마사지크림
자진 피부에 영양과 활력을 제공하여 피부 스트레스를 진정시켜주는 마사지 크림
180ml | 75,000원대

리프레싱클렌징폼
천연 파우더 성분과 조밀한 거품의 데일리 스크럽 겸용 클렌징
150ml | 30,000원대

본유에센스
주름, 탄력, 칙칙함을 케어해주는 워터 젤 타입의 안티에이징 에센스
140ml | 73,000원대

본유유액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로션
90ml | 52,000원대

본유크림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인삼 오일 성분의 고보습 안티에이징 크림
40ml | 90,000원대

릴렉싱UV프로텍터 (SPF 50+ / PA+++)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남성 UV 프로텍터
50ml | 40,000원대

쿠션

퍼펙팅쿠션 (SPF 50+ / PA+++)
탁월한 커버력으로 잡티 없이 윤기를 선사하는 쿠션 파운데이션
15g×2 | 60,000원대 (리필 25,000원대)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SPF 50+ / PA+++)
묵연 추출물이 화사하게 해주는 브라이트닝 쿠션
15g×2 |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

퍼펙팅쿠션 인텐스 (SPF 50+ / PA+++)
깊고 건강한 동안 빛을 위한 안티에이징 쿠션
15g×2 | 8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메이크업밸런서
유·수분, 피부 힘·톤·결을 밸런싱하는 메이크업밸런서
35ml | 60,000원대

CC유액 (SPF 34 / PA+++)
매끈한 도자기 피부질로 표현해주는 유액 타입 CC
35ml | 60,000원대

채담 스무딩파운데이션 (SPF 25 / PA++)
감싸안듯 부드럽게 도포되는 파운데이션
30ml | 55,000원대

채담 스무딩팩트 (SPF 25 / PA+++)
자연스러운 화사함을 하루 종일 지켜주는 팩트
10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자정 에센스비비 (SPF 50+ / PA+++)
하루 종일 밝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화이트닝 BB
30ml | 60,000원대

자정 마백UV팩트 (SPF 50+ / PA+++)
자외선과 유온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팩트
9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에서 파운데이션 [리퀴드] (SPF 15 / PA+)
3중 보호막으로 촉촉하게 커버하는 파운데이션
30ml | 55,000원대

에서 스킨케어 (SPF 25 / PA++)
크리미한 텍스처의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
14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트윈케이크 (SPF 30 / PA+++)
담담함 없이 커버해주는 트윈케이크
11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파우더
성세한 파우더가 화사한 톤으로 가꾸어주는 파우더
20g | 5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진설 유에이크림 (SPF 37 / PA+++)
3가지 빛깔의 보석 파우더가 피부에 윤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
30ml | 90,000원대

진설 유파운데이션 (SPF 25 / PA++)
피부 표면에 촉촉하게 밀착되는 프리미엄 파운데이션
30ml | 90,000원대

진설 유팩트
영온 파우더가 화사함과 윤기를 표현해주는 스킨케어 바운딩 팩트
13.5g | 110,000원대 (리필 80,000원대)

블루미네이팅 (SPF 35 / PA+++)
블루미네이팅파운데이션 스킨케어 바운딩 팩트
30g | 80,000원대

블루미네이팅 팩트 (SPF 32 / PA+++)
투명하고 화사한 피부로 연출해주는 파우더 팩트
10g | 65,000원대 (리필 48,000원대)

레이디스 블러셔
자연스럽게 화사한 핑크색과 윤기 있는 피부 빛을 더해주는 멀티 컬러 블러셔
10g | 60,000원대

립
1층 에프리트 세럼, 2층 블러셔 세럼, 3층 플라워 펙트, 4층 로즈 레드, 5층 블러셔 코랄
3g | 40,000원대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설화수 자음생크림 오리지널(3명)

헤리티지 원료인 인삼의 생명력을 오롯이 담아낸 안티에이징 크림으로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워주어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 본연의 건강한 피부를 선사합니다.



뮤지컬 <라흐마니노프>(3명)

라흐마니노프의 명곡을 뮤지컬 넘버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뮤지컬 <라흐마니노프>의 관람권을 3명(인 2매)께 드립니다(티켓 수령은 추후 당첨자 개별 공지).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7년 2월 15일까지
- 증정 선물 설화수 자음생크림 오리지널, <라흐마니노프> 관람권
- 당첨자 발표 1/2월호 독자선물 당첨자란 참조

2016년 11/12월호 독자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자음생크림 오리지널(4명)

- 서순례 경기도 광명시 안현로
- 김소현 대전 동구 흥도동
- 강여진 서울 구로구 도림로
- 김윤순 울산시 동구 산록길

뮤지컬 <아이디> 관람권(3명)

- 김명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 류동현 경기도 안양 동안구 안양천동로
- 강성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2동

2016년 11/12월호 당첨자 선물은 1월 30일까지 보내드립니다.

Sulwhasoo



시간을 뛰어넘는 적송의 생명력
빈틈없이 탄탄하게 빛나는 눈가피부를 완성하다

설화수 진설아이에센스

변화무쌍한 사계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강인한 적송의 생명력
그 적송에 극미량 존재하는 진귀한 피부생명강화성분 DAA를 담아낸 설화수 진설아이에센스
부드럽고 섬세한 텍스처가 눈가피부 전체에 작용해 주름과 칙칙함을 개선하고, 정교하게 고안된 골든아이케어마사저의 섬세한 손길로
눈가피부에 탄탄한 힘을 부여합니다. 어느 각도에서도 빈틈없이 탄탄하게 빛나는 눈가피부를 위한 새로운 안티에이징을 만나보세요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3~4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백화점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9-3116
- 롯데백화점 월드컵점 02-3213-2056
- 롯데백화점 김포점 02-6116-3150
-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 아이파크백화점 02-2012-4179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 AK플라자백화점 구로본점 02-852-6136

인천광역시, 경기도

-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450-2140
- 롯데백화점 부평점 032-452-2175
-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47
-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 롯데백화점 중동점 032-320-7135
-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136
-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031-822-3140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032-430-1479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031-8072-1801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37-9890
-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 (주)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 (주)대구백화점 프리자점 053-426-6036
-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 롯데백화점 상인점 053-258-3106
-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6

광주광역시, 전라도

-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 롯데백화점 진주점 063-289-3176
- 뉴코아아울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055-272-1108
-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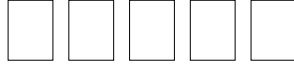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0. 9.1~2017. 9.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210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고객님의 의견은 (Sulwhasoo)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펼치다

- 설화지혜(8p)
- 피부 섬기기(12p)
- 新 장인을 만나다(16p)
- 공간미감(22p)
- 건너다(28p)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2. 누리다

- 설화인(36p)
- 어우러지다(44p)
- 설화풍경(50p)
- 설화보감(54p)
- 아름다운 기행(60p)
- 설화수를 말하다(66p)
- 설화공간(72p)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3. 익히다

- 배움의 기쁨(78p)
- 한국의 멋(82p)
- 설화에장(84p)
- 읽다(86p)
- 집 안 단장(90p)
- 몸 단장(92p)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 설화수 자음생크림 오리지널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관람권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시는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강원도, 충청도

- 엠백화점 춘천점 033-257-4129
- AK플러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719-9219
-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 세이백화점 042-256-0198

면세점

-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 롯데 소공 면세점 02-759-6662
- 롯데 인천 면세점 032-743-2422
- 롯데 인천 탑승동 032-743-7947
- 롯데 제주 면세점 064-783-3138
-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55
- 롯데 김포 면세점 02-2669-6730
- 롯데 김해공항 면세점 051-979-1932
- 신라 면세점 02-2230-3597
- 신라 인천 면세점 032-743-4488
-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02-490-3351
- 신라 제주 면세점 064-710-7324
- 신세계 명동 면세점 02-6370-4109
- 신세계 면세점 051-749-1448
- 한화 제주공항 면세점 064-740-0144
- 한화 면세점 02-2136-2779
- 동화 면세점 02-399-3123
- 삼익 면세점 032-743-0543
- 에스엠 인천 면세점 032-743-1570
- 에스엠 면세점 02-2120-6210
- 시티플러스 면세점 032-743-5718
-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064-740-6904
- 두산타워 면세점 02-3399-9236

